Entertainment p/20

홍은희 선덕여왕 후임 낙점

메트로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제2618호 www.metroseoul.co.kr

안철수株 하룻새 1300억 증발

NEWS p/03

스카우트 러브콜 받은 김대리

CAREER p/16

『인문의숲에서 경영을 만나다』에 이은, 사람 숲에서 건져 올린 빛나는 통찰

결국 사람을 아는 것이 힘이다!

기적은 하루하루 쌓아 올린 차이의 선물이다

'인문의 끝은 사람공부다!' 라는 사유를 바탕으로 한
정진홍의 사람공부 제 2탄
세상을 흔들어놓은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부터
용기와 집념을 통해 '차이'를 만든 사람들까지 전 세계를 아우르는
사람공부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통찰을 선사한다

이책을 통해 흔들리는 인생의 답을
진정한 삶의 존재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진홍의 사람공부 2
사람이 기적이 되는 순간
정진홍(중앙일보 논설위원) 지음 / 값 15,000원

▼ 정진홍의 인문경영 시리즈

각권 15,000원 / 값 12,000원 / 값 15,000원

죽어도 돈 안 모이는 직장인을 위한 월급 사용 설명서!

"월급으로 부자가 되려면 이 책만큼은 봐라!"

이번 달 월급도 바닥난 당신에게 필요한 마지막 재테크 전략

이 책은 재테크에 대해 복잡하게 고민하고 싶지 않은
직장인을 위한 최소한의 재테크 상식을 담았다
직장인의 생활과 소비패턴 의식을 정확히 분석하고
월급쟁이 직장인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비도를 알려준다
또한 직장인들 눈높이에 맞춘
예금상품 카드 사용 대출 주식 펀드 등의
사용설명서를 명쾌하게 제시한다

내 월급 사용 설명서
권민구 지음 / 값 13,000원

방황하는 이들을 위한 본격 철학 카운슬링!

브라질 아마존 1위!
철학 카운슬링 붐을 불러일으킨 책!

니체에게 길을 묻다
일란 브로시 지음 / 값 12,000원

베스트셀러 『4개의 통장』 작가 고경호의 기적 같은 반전을 만나다!

인생 밑바닥에서
쏘아 올린 7개의 꿈통장!

너무 아프지 마, 결국 원하는 삶을 살 테니
고경호 지음 / 값 14,000원

내 남자에게 말할 수 없는 두 번째 로맨스가 시작되었다!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여성 특유의 감성과 위트가 전개되는
새로운 방식!

와이프 wife 22
멜라니 기데온 지음 / 값 14,500원

21세기북스타 멘토 특강

cardbook.com

metro
메트로 2012년 11월 27일 화요일 제2618호 www.metroseoul.co.kr

성폭행 자살 딸 복수 '돈 크라이 마미'… 고문의 추악한 뒷모습 '남영동 1985'… 5·18 그 사람 단죄 '26년'…

사회적 메시지 품은 대선 스크린

무거운 주제 선전속 '제2의 도가니 열풍' 기대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한국 영화 여러 편이 나란히 선전하고 있다.

'돈 크라이 마미' '내가 살인범이다' '남영동 1985' 등은 영화 개봉과 함께 미성년 가해자 처벌, 시효제 존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법안을 다시 생각하게 하거나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져줘 눈길을 끌었다. 벌써 대선 후보들은 표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고려해 영화를 관람하거나 내용과 관련한 정책을 주장하는 것으로 영화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26일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어머니가 성폭행 후유증으로 자살한 딸의 복수를 하는 내용의 '돈 크라이 마미'는 23~25일 전국에서 42만5916명을 동원해 개봉 첫 주 3위를 차지했다.

연쇄살인범에게 기족을 잃은 피해자들이 공소시효 만료 직전 범인을 잡는다는 '내가 살인범이다'는 42만591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달 8일 개봉 이후 전국 누적 관객수는 210만9450명에 이르렀다.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고문 수기를 스크린에 옮긴 '남영동 1985' 역시 14만7759명을 불러모아 5위로 박스오피스에 진입했다.

또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무고하게 학살당한 희생자 유족들이 26년 후 비극의 주범인 '그 사람'을 단죄하는 이야기를 그린 '26년'역시 29일 개봉을 앞두고 큰 기대를 불러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장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킨 '도가니'와 같은 열풍이 불어주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사회에 큰 관심을 불러모으려면 기본적인 메시지, 오락적 요소와 함께 배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영화 관계자들은 말한다.

◆흥행 위해선 상영관 수가 관건

일단 이들 영화의 상영관 확보는 전반적으로 사정이 나쁘진 않은 편이다. 일례로 투자 및 배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돈 크라이 마미'는 365개 상영관에서 개봉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자 444개로 늘었다. '남영동 1985'도 약 300개를 확보했다.

하지만 아직 대형 배급사의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길은 멀다. 대기업인 CJ E&M이 배급해 600만 관객을 돌파한 '늑대소년'과 할리우드 대작 '브레이킹 던 파트2'는 약 600개의 상영관에서 개봉했고, 현재도 500개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소년원을 드나들던 열죄 소년이 13년 만에 찾아온 엄마와 재회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소년', '기부천사' 고 김우수씨의 일생을 다룬 '철가방 우수씨'의 스크린 수는 고작 55개와 119개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공해, 왕이 된 남자'는 개봉 세 달 째인 현재 159개를 지키고 있다.

'26년'도 개봉을 코앞에 두고 어려움을 겪었다. 영화 관계자에 따르면 300개 이상의 상영관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롯데시네마와 CGV 등에서 예매 오픈이 늦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같은 영화의 전망에 대해 문화평론가 정덕현씨는 "대선을 앞두고 사회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관객들이 판타지보다는 현실을 보려한다. 영화 속 메시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탁진일기자 ttk5427@metroseoul.co.kr

성인 인증샷 찰칵 26일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양근향교에서 수능을 마친 양평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들이 성년식을 치르기 위해 한복을 입은 후 휴대폰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담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로또 발행 10년' 2956명 인생역전… 1인당 73만원어치 구입

서울 상계동 스파편의점·부산 범일동 부일카서비스 '1등 당첨 최고명당'

로또 발행 10년 동안 2956명이 '인생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받은 1등 당첨금은 13조4974억원에 달한다.

2002년 12월 2일 인생역전 꿈이와 함께 등장한 로또 복권이 다음 달 2일 발행 10주년을 맞는다.

◆최고액 407억 최저액 5억

26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와 나눔로또에 따르면 10년 동안 우리나라 성인 1명당 평균 73만원어치(730만 게임)의 복권을 사들였다.

지난 24일 열린 521회차까지 총 2956명의 1등 당첨자가 13조4974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했으며 로또 총 판매금액은 26조9949억원이었다. 역대 1등 최고 당첨금액은 2003년 4월 407억2295만9400원이었다. 이는 1등 당첨자가 한 명인 데다 지난 회차 이월금까지 합산된 결과다.

1등 당첨금 최저 액수는 2010년 3월의 5억6000만여 원으로 당시 중복 당첨자가 19명이나 됐다.

보너스 번호를 제외하고 당첨번호로 가장 많이 뽑힌 번호는 88회 나온 40이었다. 이어 20(85회), 34·37(82회), 1·27(80회), 4·14(75회) 등도 단골 번호였다.

◆최다 당첨번호는 40번

2007년 12월 이후 최근까지 로또 1등 당첨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판매점은 각각 10명을 인생역전시킨 부산 동구 범일동 부일카서비스와 서울 노원구 상계동 스파편의점이다.

로또가 가장 많이 팔리는 요일은 추첨 당일인 토요일(41.2%), 금요일(19.2%), 목요일(11.6%), 수요일(10.0%) 순이었다.

로또 구매 열풍은 2003년 2월 당첨금 이월 횟수를 5회에서 2회로 줄이고 2005년 8월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면서 한풀 꺾였다.

그러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복권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나눔로또 관계자는 "몇 년 사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복권이 잘 팔린다'는 속설이 입증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씁쓸한 퇴임 현직 검사와 여성 피의자의 부적절한 성관계 파문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표명한 석동현 서울동부지검장이 26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가고 있다 /뉴시스

거액수뢰·성추문 등 최대위기 탈출위해 전국 평검사회의 잇따르지만

검찰 청렴도 평가 꼴찌

법무부·경찰과 함께 5등급

높아지는 자체 개혁의 목소리가 무색하게 검찰이 연일 터지는 악재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6일 검찰은 최근 부장급 검사의 금품수수 사건, 초임 검사와 피의자 간의 부적절한 성관계 사건에 이어 청탁을 받은 검사의 편파수사 의혹 등이 불거지며 불어닥친 위기론과 관련,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날 오후 늦게 수원지검과 서울북부지검 등의 평검사들은 잇따라 회의를 열어 현 상황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28일에도 서울서부지검 등에서 평검사 회의를 진행하는 등 평검사들의 회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한상대 검찰총장은 15일 서울고검 예하 지검장들을 불러 모았으며 22일에는 고검장·일선 지검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25일에는 대검 과장(부장검사급) 이상 간부 42명과 머리를 맞댔다. 한 총장은 이번주에도 일선 검사장들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으며 다음달 7일께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상대 총장 책임론 확산

하지만 검찰 개혁의 칼날은 일선 검사뿐만 아니라 이미 수뇌부를 겨누고 있다.

한 총장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재벌 기업 회장에 대한 7년의 구형량을 4년으로 낮춰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고무줄 재벌 논란'의 중심에 섰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조사한 결과, 검찰은 법무부, 경찰과 함께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청렴도에서 최하 등급이었다.

청렴도는 대민 내관 업무의 민원인과 내부 소속직원 등을 대상으로 부패 경험과 부패 위험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뒤 부패 사건이 발생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신뢰도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채윤조기자 eleven@metroseoul.co.kr

지리산 입산시간 지정제 내년 3월부터 본격시행

내년 3월부터 지리산 탐방객은 사전에 입산 시간을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www.knps.or.kr)은 내년 3월 1일부터 지리산 국립공원 '입산 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든 탐방로는 하절기(3~11월)에는 오전 4시, 동절기(12~2월)에는 오전 5시부터 입산 가능하다.

통제 시간은 각 탐방로의 대피소 이부나 코스별 소요시간 등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이르면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에 조정된다.

예를 들어 하절기 성게사를 출발, 지리산에 오르려면 오전 4시 이후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등산을 시작해야 한다. /서동조기자

비과세 혜택 즉시연금 가입 급증… '쏠림' 부작용 점검

경기 침체와 저금리 기조로 보험계약이 줄고 있는 가운데 저축성보험의 하나인 즉시연금 계약금만 이례적으로 크게 늘었다. 비과세 혜택과 목돈을 내고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없어질 예정이어서 수요가 더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즉시연금으로의 쏠림현상 완화에 나섰다. 금리 역마진과 은행 역존도 심화 등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2012 회계연도 2분기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7조564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99.1% 늘었다고 밝혔다.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급등한 것은 저축성보험 상품의 하나인 즉시연금에서 쏠림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시연금의 초회 보험료는 2011 회계연도 연간 4조271억원에서 2012 회계연도 상반기 중 5조6649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카슈랑스와 저축성보험으로 기업어 쏠리는 현상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불완전판매, 부실계약 등 문제가 있는지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상기자 ...

진관경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성탄절을 한 달가량 앞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동쪽광장에서 생수페트병 조각을 사용해 일류 기둥을 도안한 한환경호소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맞아 스노우 글로브쇼 축하 공연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생산원가 추월한 휘발유 세금

휘발유 가격에서 세금 비중이 생산원가를 넘어섰다.

26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주유소 판매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7.9원이었다. 이 가운데 정부에서 부과한 유류세는 923원으로 47%를 차지, 정유사 생산원가(880.5원·45%)을 추월했다. 유통 마진은 180.7원으로 7%였다.

보통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줄곧 생산원가를 밑돌다가 10월 마지막 주 47%로 비중이 같아졌고, 이달 첫째 주부터 생산원가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보통휘발유의 유류세는 교통세(529원), 교육세(교통세의 15%), 주행세(교통세의 26%), 부가세(세후 가격의 10%) 등으로 구성된다.

유류세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 국제원유 가격이 하락, 생산원가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자동차용 경유는 ℓ당 1770.9원에서 세금이 39%(689.7원)를 차지, 정유사 생산원가 55%(968.4원)에 한참 못미쳤다.

/박성훈기자 zen@

안철수株 1300억 증발

개장하자마자 안랩 등 무더기 하한가… 개미들 "한강 가자" 비명

대선 테마주 가운데 '안철수 테마주'가 가장 먼저 되장됐다.

안철수 전 대선후보가 지난 주말 사퇴 의사를 밝히고, 첫 개장한 26일 관련 종목 시가총액 1300억이 증발했다.

안철수 테마주의 시가총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총 1조8714억원이었던 것이 26일 장 시작 한 시간여 만에 1조7237억원으로 줄었다. 1477억원이 증발한 것이다.

장중 소폭 증가한 종목에 힘입어 이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7416억원을 기록, 하루동안 1300억원이 빠졌다.

이날 고스닥 시장에서 대표적 안철수 테마주인 안랩은 전 거래일보다 14.96% 떨어진 3만5250원에 마감됐다. 대선 판도에 따라 요동치던 안랩 주가는 올해 초 기록했던 15만9600원(종가 기준)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셈이다.

다른 테마주인 써니전자와 미래산업 등 8개 종목도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박근혜·문재인株는 상한가

반면 박근혜 테마주는 안철수 전 대선후보의 사퇴 이후 다시 상한가 행진 중이다.

문재인 테마주는 이슈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주도권을 쥐었다고 판단될 때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는 양상이다.

/김하늬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제일 당하는 투신소동 안철수를 지지하는 한 남성이 26일 서울 종로구 공평동 안철수 후보 측 건물 옥상에서 안후보의 사퇴 철회를 요구하며 투신자살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제압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글·그림 박상철

후보직 또 내려놓은 심상정

"문 중심으로 정권교체"…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 사퇴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26일 야권 단일화를 이유로 두번째로 후보직을 내려놨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직 사퇴를 선언한 뒤 "저의 사퇴가 사실상 야권의 대표주자가 된 문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교체의 열망을 모아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정치에서 선거 때마다 반복된 후보 단일화를 위한 중도 사퇴는 제가 마지막이 돼야 한다"며 "대선 후보로서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만 노동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향한 노력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한 정책연대를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후보는 2010년 진보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당시에도 야권 단일화를 위해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범야권이 하나로 뭉치게 됐다. 국민연대 구성에 더 박차를 가하겠다"며 "심 후보와 조만간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김유리기자

박근혜 문재인 포스터 공개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왼쪽)과 민주통합당 관계자들이 26일 각각 서울 여의도와 영등포 당사에서 공식선거운동에 사용할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포스터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세종시-부산서 첫 유세

朴, 원칙·신뢰 이미지 강조… 文, 여권 텃밭서 '통 큰 행보'

제18대 대통령 선거 운동이 본격 시작된 27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세종시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부산을 첫 유세지로 선택해 세몰이에 나선다.

26일 박 후보 캠프에 따르면 세종시는 수도권, 부산 등과 경합을 벌였으나 박 후보의 국토균형발전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최종 선택됐다.

세종시는 지난 2010년 수정안 논란 당시 원안 사수를 끝까지 고수한 박 후보의 원칙과 신뢰를 상징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복안도 깔려 있다.

이어 박 후보는 전북으로 옮겨 군산·익산·전주 등지를 돌며 호남권 표심 잡기에 나선다.

박 후보는 유세단 '빨간 목도리'를 앞세우고 동방신기의 '노란 풍선', 트로트곡 '어머나', '무조건' 등 로고송 20여 곡으로 유세 분위기를 띄운다.

문 후보는 격전지와 텃밭을 모두 아우르는 '큰형님' 행보로 대선 유세를 시작한다. 문 후보의 첫 유세 지역은 여권 텃밭으로 불리는 부산이다.

부산은 최근 반여권 성향이 감지되면서 야권의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문 후보의 연고지라는 점도 작용했다.

문 후보는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한 충북을 박 후보보다 하루 먼저인 26일 방문해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광주를 방문하며 전통 지지층 단속도 잊지 않았다.

문 후보 측 유세단은 '맞춤형'이다. 가수 박현빈, 장윤정 등의 가요를 개사한 로고송을 기본으로 도시형, 농촌형에 맞춰 총 15곡을 준비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무소속 권영길, 경남지사 야권 단일후보로

권영길 무소속 후보가 26일 경남지사 야권 단일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측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우리당 공민배 후보가 야권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권 후보를 단일후보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권 분열을 극복하고 승리의 디딤돌을 놓기 위한 민주당 차원의 자기성찰이 있었다"며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양보로 대선에서 야권 단일화를 이룬 민주당이 경남도지사 선거 양보를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유리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소공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회장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광고국장 책임	김한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52

2002년 5월 27일 창간 2002.5.30 등록번호 문화가 00017

온라인 콘텐츠 품질인증 신청 접수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신(新)나는 온라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2012년 콘텐츠 제공서비스 품질 인증 3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콘텐츠서비스 사이트들의 이용자 편의성, 서비스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품질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하는 제도로 만화, 게임, 전자출판,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과 그를 서비스하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다.

3차 사업에서 선정된 업체들에는 2년간 품질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발급받고 대내외 홍보 지원, 산업기능요원 추천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사업 접수 기간은 다음달 3일 오후 3시까지 해당 홈페이지(www.goodcontent.kr)로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단 이번 3차 사업에서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신청일 현재 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중인 업체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1)8016-8502 sjkim@kocca.kr /채성호기자

불황속에 뜨는 '재테크'

직장인 연 30% 안정적인 수익 창출
5~30명 공동사장체제 매장 인수
(주)오너-유 10년 노하우로 운영

경기불황에 주식, 펀드, 적금, 부동산 등 재테크 상품들이 빛을 못주고 있다. 직장인들은 부자하를 찾지 못하는 통에 우왕좌왕 하고 있다.

이 때 직장인, 퇴직자, 은퇴준비자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소자본 창업이다. 20~30대 예비창업자 및 정년퇴직자들이 창업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국내 창업시장에서 창업 후 3년 안에 폐점되는 비율이 70% 수준이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초보 창업자의 경험부족, 동종업종 과열 현상, 무분별한 창업으로 돈을 잃는 거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프랜차이즈도 예외가 아니다. 가맹본사에서는 가맹점주에게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내주기 바쁘다. 브랜드가 달라도 같은 업종이 동일 상권에 10개 이상 있는 지역도 있다.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 매장을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악덕 창업 회사들도 생겼다.

(주)오너-유(www.owner-u.com)의 이준수 대표는 초보 창업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나섰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소자본 창업 재테크 방식은 처음 창업하는 사람이라도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그는 "소자본 창업 재테크 만으로 연수익률을 30% 정도 낼 수 있다"붙고 "전하며 흥미위한 재테크 상품들보다 안정적이며 투명한 수익률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소자본재테크 상품을 기획하면서 이 대표와 직원들은 매출 좋은 매장을 찾기 위해 수 개월을 고생했다. 그는 매출이 좋은 매장을 찾은 뒤 작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까지 참여를 받고 5명에서 30명까지 공동사장 체제로 매장을 인수해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 가지는 시스템이다. 선진국에서 MPS(Market Profit Sharing)이란 이름으로 활성화 돼 있다.

공동명의자인 실질적 운영은 (주)오너-유에서 담당하며 매장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지분율에 의해 나눠갖는다. (주)오너-유의 10년 노하우로 마케팅, 상권분석, 메뉴개발, 정통업종 10년 경력 이상의 메니저들이 체계적으로 매장을 운영한다.

이 대표는 "금액이 높은 대형 매장을 인수하면 더욱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며 "작은 매장일 경우 동일 상권 창업 문제 매장이 개설될 경우 매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한 매장이 아니라 여러 매장에 분산 투자 하라고 조언했다.

서울 바꿀 시민아이디어 '위키서울닷컴' 올리세요

서울시는 '여럿이 함께하는 경제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가 주최하고 민간 시민사회가 연대 협력을 함께 솔게 만들어가는 이 대회는 서울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문제와 고민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실천적 해법을 제시하면 서울시와 '희망제터', 사회연대은행,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희망제작소 등 민관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민의 지혜 40선'에 선정된 아이디어에는 ▲크라우드 펀딩 1000만원 ▲창업투자팀 해외연수 및 창업지원금 1000만원 ▲최장 3년간 맞춤 후 인큐베이팅이 제공된다. 아이디어 등록은 다음달 2일까지 위키서울닷컴(www.wikiseoul.com)에서 받는다.

안전공단 경기서부지도원 인산민나복지관 자원봉사

26일 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도원에 따르면 임직원으로 구성된 안전사랑봉사단이 지난 22일 안산시 소재 장애인생활시설기관 만나복지관을 방문해 뜻깊은 봉사를 펼쳤다.

봉사단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 30여 명에게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하고 고령자를 위한 건강상담 활동을 벌였다.

이날 안전사랑봉사단은 복지관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만나복지관으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경기서부지도원은 "2010년부터 장애인 및 노숙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며 성금과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 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김포국제공항 관제탑에서 내려다 본 국제선의 야경. 지난 6월 김포국제공항은 세계항공교통학회(ATRS)의 '공항운영효율성' 부문 평가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열린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시상식에서는 김포국제공항은 중규모 공항 중 1위를 수상했다. /한국공항공사 제공

VIP 의전 받고 꿈의 제주 항공여행

KAC 한국공항공사 내달 14일까지 여객 5000만명 돌파기념 페이스북 이벤트

지난달 열린 한국리모델링 건축대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제주공항의 모습. '더 높이 더 새롭게'란 주제로 실시된 제주공항 리모델링 사업은 급증하는 이용객에 대비해 2007년 5월부터 총 3432억원을 들여 지난 7월 완공됐다.

공항의 VIP 의전서비스를 받으며 겨울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무료로 만끽해 보자.

전국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시철)는 "다음달 5일 올해 전국 공항(인천국제공항 제외) 여객 5000만 명을 돌파할 예정"이라며 "이를 기념하는 럭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여객 5000만 명 돌파 럭키 이벤트는 다음달 14일까지 약 3주 동안 한국공항공사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airport.korea)에서 진행된다.

◆ 축하메시지 남기면 경품 '팡팡'

공식 페이스북의 '좋아요' 클릭 후 여객 5000만 돌파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을 증정한다.

특히 1·2등 경품 당첨자는 한정된 귀빈만 이용할 수 있는 공항 VIP 의전서비스를 경험하게 된다.

공항 VIP 의전서비스는 공항 도착부터 탑승 과정을 최고급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서비스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의전서비스는 일부 인사만 이용할 수 있는 의전실에서 편안하게 차를 마시며 탑승을 대기할 수 있는 등 영화나 드라마 속 한 장면을 체험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1등 당첨자에게 공항 VIP 의전서비스와 함께 제주 왕복항공권 2매 및 특급호텔 2박 숙박권(2명)이, 2등 당첨자에게는 공항 VIP 의전서비스와 부산 왕복항공권 2매(5명)가 주어진다.

이벤트 참가자 300명은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커피 모바일 쿠폰 1개를 받게 된다.

◆ 다음달 5일 여객 5000만 명 돌파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여객 5000만 명 돌파 예정일인 다음달 5일 김포공항 이용객들에게 선착순으로 감사카드와 기념 선물을 전달할 계획이다.

크리스마스 트리로 꾸며진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사진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올해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한국공항공사 공항 여객 역시 5000만 명을 돌파해 그 의미가 더 크다"면서 "세계공항 서비스평가(ASQ) 중규모공항 1위 수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최고의 서비스와 이벤트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서울시우수기업브랜드

서울을 대표하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 – 하이서울

Hi Seoul

www.hiseoulbrand.sba.kr

서울특별시와 SBA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도 고유브랜드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소재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3년도 『하이서울브랜드기업』을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대상기업	대상요건
• 정보통신(IT융합 기반기술 적용제품 우대) • 패션, 뷰티(의류, 패션잡화, 화장품 등) • 바이오/메디컬 • 친환경/녹색 • 생활아이디어 • 문화콘텐츠(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제품 등) ※ 기타 하이서울브랜드 적용이 가능한 제품	• 서울 소재 사업장 보유 및 자사제품 개발/제조업체 ※ 2011년 매출 15억원 이상과 신청일 현재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기업

※ 우대기업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전문기업 또는 혁신성(기술력, 디자인 등)이 강한 제품

※ 제외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국세, 지방세 미납기업

2. 신청 및 접수

* 기간 : 2012. 11. 21(수) ~ 12. 5(수) 18:00까지
* 접수처 : (135-28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SBA 3층 성장지원팀 (3호선 학여울역 1번출구 SETEC 옆 SBA 청사 3층)
* 신청절차 – 1단계 : 온라인상 기본정보 등록 및 신청서 다운로드 SBA 홈페이지 방문(www.sba.seoul.kr)

기업회원 가입 후 로그인 ▶ 홈페이지 메인상단 「사업신청」 클릭 ▶ 「2013년도 하이서울브랜드기업 모집」 클릭 ▶ 하단 "신청서 등록" 클릭 후 기본정보 입력 및 설문조사서 업로드

– 2단계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우편, 택배 및 방문신청만 가능)

* 접수 유의사항
  • 온라인 등록 후 신청서, 증빙자료 제출요망.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우편, 택배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18시) 도착 분에 한하여 유효 • 접수는 평일 9:00~18:00 가능하며, 토·일요일은 휴무

3.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 선정기준 : • 제품의 우수성, 기술성 • 기업경쟁력 및 가능성 • 기업 및 CEO 역량 및 비전 • 재무건전성 등

• 선정절차 : 1차심사 : 서류평가 ▶ 2차심사 : 프레젠테이션 ▶ 3차심사 : 현장실사 ▶ 최종심사 : 최종심의

4. 하이서울브랜드 기업 혜택사항

• Hi Seoul 브랜드 사용권 부여 • 국내/외 마케팅 지원 • 홍보 및 기타지원

SBA T. 02-2222-3771~7 www.sba.seoul.kr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Canada

Vertical farm opens in park

metro HongKong

港大

홍콩인들 "달걀 먹으면 기분 좋아져"

최근 홍콩대학이 홍콩 시민 510명을 대상으로 달걀 섭취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30%가 최근 한 주간 달걀을 먹었다고 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달걀을 먹은 사람들이 먹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분이 더 좋고 정신이 맑았다고 답했다는 점이다. 홍콩대 의대 신경과의 루젠웨이 교수는 "달걀의 비타민 B12, 엽산 등 필름 성분은 신경 발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서 "부족하면 지력 주의력 부족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etro Chile

dinero a causas ben

예산안 심의 도중 영화 본 국회의원들

총력 의원들이 국회에서 로맨스 영화를 보다 들켰다. 21일 정부 예산안 심의 도중 독립근무연합당의 파트리시오 멜레로 의원과 안드레아 몰리나 의원이 로맨스 영화를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동료 의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자 두 의원은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그러나 영화 보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결국 사실을 인정했다. 몰레로 의원은 "몰리나 의원과 영상석사 를 러처드 기어가 나오는 영화 장면을 봤다"며 "심의 를 영향 나용이 공공적은 영상을 찾아봤다"고 말했다.

metro France

'effondrent, pas

프랑스 집값 대폭락 우려

'대폭락'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프랑스 부동산 시장에 연착륙을 위한 묘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메트로 파리는 침체 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긴급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급감하고 있지만 매매가는 아직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인 메이에르 아장(MeilleursAgents.com)의 대표인 세바스티앙 드 라퐁은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현재 시세보다 15~20% 가격이 더 내려가길 바라고 있지만 매도인 대부분은 아직 가격을 내릴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며 "남유럽 경제 위기에도 매도인 대다수는 부동산만이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분간 매매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경제 위기가 더 확산되면 가격이 폭락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인 스로제(SeLoger.com)의 대표 플랑 트리메르는 "최근 들어 사이트 방문객이 2000만 명을 넘었다"며 "이는 전례 없는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가격을 서서히 하락시키는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중개 사이트 '피이에르 또'의 톨랑 트리파르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이자가 현재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매매가가 떨어져야 한다"며 "파리와 파리근교인 일드프랑스에서 최대 5% 지방의 대도시에서 5%에서 10%까지 하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바스티앙 기블러 기자·정리=이국명 기자

옥상 농장서 채소 '무럭무럭'

잘 쓰이지 않는 주차공간 등 빌려 친환경 농작물 재배…태양광·온도·습도 자동조절

캐나다의 한 주차장 옥상에 설립된 수직 농장(vertical farm)에서 케일·시금치·허브 등 신선한 녹색 채소가 쏟아져 나왔다.

친환경 수직 농장 설립 업체인 알터러스 시스템즈는 올해 밴쿠버 도심에 '로컬 가든'을 지었다. 회사는 그동안 키운 농작물의 상업적 판매를 앞두고 최근 축하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 참석한 그레고 로버트슨 밴쿠버 시장은 "첨정 기술로 이렇듯 혁신적인 친환경 농장을 만들어 기쁘다"면서 "수직 농장은 시에서 사용하지 않던 공간을 활용하고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한 '윈윈 사업'"이라고 말했다.

수직 농장은 고층 건물에 농장을 만들어 첨단 시스템으로 식물을 기르는 일종의 '식물 공장'이다. 시스템을 통해 태양광, 온도, 습도, 양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으며 계절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채소류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밴쿠버에 본사를 둔 알터러스 시스템즈는 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을 임대해 600㎡ 규모의 '로컬 가든'을 만들었다. 수직 농장을 꾸리기 위해 투자한 비용은 200만 달러(약 21억원) 정도다.

알터러스 시스템즈는 로컬 가든에 수직 농장 시스템인 '버티 크롭'을 설치, 다양한 야채소와 허브를 재배했다. '버티 크롭'은 지난 2009년 영국의 펙인턴 동물원이 동물의 사료로 사용할 유기농 식물을 재배하기 위해 처음 사용했다. 하지만 알터러스 시스템즈는 농장에서 재배한 식물을 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회사 관계자는 "로컬 가든의 농작물은 보통 20일가량 자란 뒤 일조량 조절을 위해 벨트 컨베이어를 타고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직 농장에서 매년 15만 파운드(약 68t) 가량의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선도 뛰어나 구입문의 쇄도

로컬 가든의 농작물 판매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내 유명 식당과 식료품점들은 서둘러 구입 의사를 밝혔다.

밴쿠버 시내의 한 식당 요리사는 "로컬가든에서 재배한 채소의 맛이 일품"이라며 "앞으로 식당에서 사용할 채소 대부분을 수직 농장에서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나온 채소는 운반하는 과정에서 신선도가 많이 떨어진다"면서 "수직 농장에서 기른 채소는 수확한 뒤 곧바로 식당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제일리 잭슨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 칠레 내년부터 정규 교과목 된다
- 홍콩 오션파크, 최고 테마파크에
- 홍콩 분유 훔친 임신부 폭행당해 유산

2012/2013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우수여행상품

국내여행인증상품

[코레일투어서비스/1544-4590] 한려수도(장사도 케이블카) 특선 1박2일(경남) 남이섬/정병 레일바이크 당일 기차여행(강원) 정선 레일바이크/바다열차 1박2일(강원) 정선 레일바이크 당일 기차여행(강원) [㈜성은여행/064-712-6006] 렌터카투어(제주) [㈜문치이앤트투어/064-724-6887] 목화공체험 레포츠(제주) 올레투어(제주) 추사와 함께하는 트레킹 투어(제주) 헨토고리두어(제주) 2012 제주 ■■■(올올올) 투어(제주) [㈜도투투어네트워크/02-728-8700] 초요기를 밟아라(전남) 코시롭한 제주 나들이(제주) 행동비단장승마을 당일체험여행(강원) [㈜하얀스케치여행사/02-701-2506] 2012 여수 세계박람회와 용산의 푸른바다의 보석! 외도/해금강(서남) 이야기가 있는 경북 대구~상주~고령으로 떠나는 문화여행(경북) 걷고 싶고 맛보고 추억이 있는 '인천 월미 달빛누리' 행복여행(인천) [㈜유럽스/064-745-0330] 休 제주힐링투어(제주) [한국드림관광㈜/1577-8121] 역사탐방 자연산바 울주&월진(경북) 자연과 함께 하는 아생버라이어티 울릉도 자연 생태투어(경북) 내가 제일잘나가! 울릉도 귀족투어(경북) [㈜아이엔디투어/02-730-3711] "탐라홍진" 패밀리투어(제주) [㈜파라다이스티엔엘/02-2260-2043] 4대강 투어(서울) [㈜현대관광/02-751-4585] 은은한 허브향가 허브일라지 체험과 숙박 그리고 DMZ 명방여행(강원) [홍익여행사/02-717-1002] KTX 남도철이/토요국악공연/웰소 핀랑 기차여행(전남) KTX 시민의 섬 완도 보길도/청산도 기차여행(전남) KTX 한려수도 일주 기차여행(경남) 경북 웰미/일가온천/유교문화 체험 기차여행(경북) [우리테마투어/02-733-0882] 구들장 논'의 섬, 청산도와 보길도로 떠나는 외딴섬 기행(전남) "낙도의 여마리" 한쪽 장사도와 소매물도로 떠나는 비경여행(경남) [롯데관광개발㈜/1577-3700] 태고의 신비 울릉도와 우리나라 독도 3일(경북) 큐켈 좋은 제주! 럭셔리호텔 & 올레투어 3일(제주) 실크로드 거가대교 최단의 한려수도 일주 2일(부산) 솔로시티 관도와 청산도를 찾아서 2일(전남) 붉은대게먹고 한우먹고 백암온천 2일(경북) 총통해남 두륜산 케이블카와 보길도 2일(전남) 대구 골목길 & 동화사 당일여행(대구) 새시를 인천의 7080 추억의 당일여행(인천) [㈜한라산기지투어/031-987-3001] 설악펄 체험(제주) 신제주 환전착목(제주) 힐레제주 맛과 멋(제주)

해외여행인증상품

[㈜모두투어/02-2275-0368] 서유럽 22일(유럽) 서유럽 16일(유럽) 서유럽 10일(유럽) [㈜모두투어네트워크/1544-5252] [My Story] 상하이 자유여행 3일(아시아) [스머프마을 조레로쉬 리조트] 오사카/사라하아/교토/나라/고베 온천 4일(아시아) [고품격] 동유럽 5국 9일(비엔나 할슈타트 클림트의 키스)(유럽) JOP(HBOZMD)/홍콩 오키나와 4일(아시아) 북유럽 4국 9일(3대 피오르드와 투허킨+환상의 크루즈 SILJALINE)(유럽) 구로카와/후쿠오카/아소/벳부/유후인/구마모토 온천 4일(아시아) [Premier 호주] 선/신/국/형 아서부 퍼펙트 일주 8일(미주) 멕시코 칸쿤 더 로얄-로얄 주니어 스위트 오션프론트 7일(미주) [디럭스] 북해도 온천 4일(아시아) [선상연회석식] 동경/요코하마/하코네 온천 4일(아시아) [숨겨진보석] 하롱베이/앙코르왓 6일(기네서진+5대특식)(아시아) [고품격플러스] 푸껫 6일(아시아) [㈜파라다이스티엔엘/02-2266-2100]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아일랜드/에메랄랜드 16일(유럽) 디펜마/방콘/바긴/헤호/만달레이 7일(아시아) 산동성 온천여행 3일(아시아) 나오시마 미트주에 3일(아시아) [Safari Park Hotel] 케냐 사파리 8일(아프리카) [코카서스]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그루지야 10일(유럽) [로트리쉬] 남브렉스 일주 8일(유럽) [㈜기아투어/02-536-4208] [하나님] 후하한 힐튼 리조트(아시아) [하나은] 카오락 Le Meridien+푸껫 Indigo Pearl 5일(아시아) [하나님] 카오락 Le Meridien Resort 5일(아시아) [하나님] 로렌틱 스위스 일주 자유여행-로렌틱 루트(유럽) [하나님] 후아힌 힐튼 & 풀빌라 연계(아시아) [하나은] 세부 Maribago Bluewater 5일(아시아) [하나은] 오하루 하얏트 라센시 6일 가이레 웰러스(미주) [㈜한진관광/02-726-5743] [알래드 이케리카] 자이더널호 알래스카 크루즈 9일(KE)(미주) [미래프] [웨스트 샌드] 투비드럼 스위트 5일(아시아) Art in 러시아 & Nature 피오르드 북유럽 4개국 12일(유럽) 스페인 일주 10일(유럽) [㈜세방여행사/070-7017-2123] 유슈 유후인 전통료칸+아소쿠 빌리지 3일(아시아) [롯데관광개발㈜/02-2075-3005] 해양의 나라 오키나와(아시아) [No Tip/No Option]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오세아니아) [국내선 2회+특급호텔] 인도 골든트라이앵글과 바라나시 인도 8일(아시아) 터키(톱프론 & 특급호텔 & 최고급특식 & 밸리댄스) 8일(유럽) 유럽[미테리 완전일주와 필프라우] 서유럽 4개국 10일(유럽) [프라하 비엔나 그 천년의 향기] 동유럽 9일(유럽) 계림/삼그릴라/양삭/용승 6일(아시아) 구채구(황룡)/사안(화적지 예마용) 5일(아시아) [AI포함+선셋BBQ] 팜 PIC 골드 5일+환타지쇼/노랑/노소위/노티지(미주) [㈜KRT/02-2124-5511] 시드니/블루MT(저널란+포트스티븐)6일(오세아니아) [㈜혜초여행개발/02-6263-2000] 안나푸르나 쿤힐전망대+바이스캠프 트래킹 11일(KE)(아시아) 혜초와 함께하는 서역기행 10일(아시아) 유럽 알프스 3대 미봉 트레킹 11일(유럽)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여행상품 인증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협력을 공정여행 정착과 건전한 여행상품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우수여행상품 사행공고 / 심사 / 평가 / 인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여행사들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 인증제도는 사)한국여행업협회가 시행하고 전문 평가위원회(여행관련학회, 소비자관련단체, 여행사대표 등으로 구성)가 심사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및 인증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여행상품인증 제도입니다.

• 검색창에서 **여행정보센터** 를 검색하시면 상품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tourinfo.or.kr)

여행정보센터

소비자 피해구제 가능 여행사 검색
2012/2013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우수여행상품
여행불편처리센터 운영

공정여행
함께 행복을 ... 건전한 여행
- 공정여행의 시작입니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KATA 한국여행업협회
Korea Association of Travel Agents

Kospi	11/20	11/21	11/22	11/23	11/26
	1900.78	1894.04	1930.50	1911.33	1908.51 (−2.82)

Kosdaq	11/20	11/21	11/22	11/23	11/26
	494.60	492.19	497.03	458.82	456.24 (2.58)

Nikkei (일본) 9386.94 (+22.14)
Hang Seng (홍콩) 21861.81 (−52.17)
Shanghai (중국) 2017.46 (−9.92)
Dow Jones (미국) 13009.68 (+172.79)

EXCHANGE RATE	
달러	1085.00
엔(100)	1322.69
유로	1407.14
위안	174.28

삼성-애플 부품전쟁

'가격인상 vs 공급처 변경' 기싸움에 LG 빈사이익

특허 소송전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번에는 부품 공급과 수요를 놓고 힘 겨루기에 나섰다.

최근 삼성이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의 가격을 20% 인상할 수 있다는 루머가 나돌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디스플레이와 배터리 공급처 목록에서 사실상 삼성을 제외했다.

26일 미국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 애플은 아이패드와 맥북용 배터리를 삼성SDI가 아니라 중국의 암페렉스 테크놀로지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부품 수요를 서서히 줄이는 게 아니라 일시에 끊었다는 얘기다.

삼성과의 소송이 길어짐에 따라 삼성과 거리를 두면서 소송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려는 의지로 보인다.

이날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10월 애플 아이패드 시리즈에 장착한 9.7인치 디스플레이의 71.8% (424만6000대)가 LG디스플레이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 공급량보다 5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삼성디스플레이의 애플 출하량은 257만8000대에서 42만8000대로 80%이상 급감했다.

"부품 살 사람은 많다"는 삼성과 "부품 팔 사람은 많다"는 애플 가운데 누가 더 크게 웃을까.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나눔으로 더불어사는 건설산업-현대건설 해외공헌 활발

5억 들여 마닐라 희망센터 짓다

국내 1위 건설업체인 현대건설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사회공헌 활동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2009년 현대건설 가족 사회봉사단을 발족, 선시적인 사회공헌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사랑 나눔, 희망 나눔, 문화 나눔의 3대 사회공헌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illegible] 지역에 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하고 일용직 근로자를 위한 직업교육센터와 지역주민 치료를 위한 의료센터, 그리고 아이들 교육을 위한 케어센터로 쓰고 있다.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사용된 금액은 현대건설 임직원들이 1년 동안 모은 것으로 현대건설 및 계열사 임직원 [illegible] 5억3000만여 원이 모금됐다. 이렇게 모금된 금액은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더불어 중증 장애 아동 수술비 및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축구 동아리 지원, 태풍 및 수해 피해 긴급 재해성금 기탁,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에 쓰였다.

이밖에도 현대건설은 결식 아동들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도시락을 제공하는 '희망도시락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60여명의 아동을 지원했다. /박성훈기자

고사리손으로 쌓은 미래건물 '감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5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1회 어린이가 만드는 미래건설산업 창의력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미래를 레고브릭으로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어린이들의 무궁한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학생들은 교량, 탑, 주택 등 아이들이 만들었다고 보기에는 창의력과 완성도, 안정성 면에서 뛰어난 작품을 선보여 심사위원들을 놀라게 했다. 총 100팀이 참여해 14팀이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상과 장학금을 받았다.

생태 시공기술로 도시홍수 방재

현대건설 '자연환경 대상'

현대건설이 최근 환경부와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자연환경대상'에서 대상인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자연환경대상이란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시 개발지역을 생태적으로 우수하게 보전·복원한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상으로, 현대건설은 서울 양천구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공원녹지 조성사업으로 SH공사(시행 시행자), 선진엔지니어링(설계사)과 함께 대상을 수상했다.

현대건설이 시공한 신정3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공원녹지 조성사업은 대규모 단지 개발로 발생될 수 있는 도시 홍수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생태적 단절과 환경오염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녹색 기술을 도입했다.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는 최근 도시 홍수의 방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다기능 빗물 저류지 도입을 꼽을 수 있다.

비즈니스 리더십·마케팅 역량 양성소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경영 환경을 바꾸면서 e-비즈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글 같은 경영 생태계 속에서 e-비즈니스 공부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됐다.

경희사이버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이주민 학과장은 "대부분 e-비즈니스학과를 '전자상거래학과'로 간주하고 일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현실"이라면서 "경희사이버대 e-비즈니스학과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탁월한 경영'을 목표로 경영 전반에 관한 지식을 종합적으로 가르친다"고 강조했다.

◆ e-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탁월한 커리큘럼

이주민 학과장은 "학문 특성상 사회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다"면서 "e-비즈니스 환경에서 탁월한 경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소망"이라고 밝혔다.

e-비즈니스 학사 과정은 경영일반, 경영정보, 회계와 재무, 경제와 무역 등 경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는 기초 과정과 리더십 및 마케팅에 대한 심층 지식을 배우는 심화응용 과정으로 나뉘진다.

이 학과장은 "기초 과정과 심화응용 과정 외에 학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2+1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리더십 센터와 마케팅 센터,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그 사례"라고 말했다. 리더십 센터는 최고경영자를 위한 CEO 리더십 코스, 중간 경영자를 위한 프로페셔널 리더십 코스, 창업가를 위한 이노베이티브 리더십 코스로 구성돼 리더의 핵심 역량인 전략적 시고와 미래 비전 제시 및 화합 등을 교육한다.

이밖에도 마케팅 센터는 마케터를 위한 프로페셔널 마케터 코스, 글로벌 마케터 코스를 진행하며 고객 가치 창출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두 센터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글로벌 현장 체험 기회와 글로벌 시장 분석 및 시장 개척 실습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배양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스마트 모바일 시대 '탁월한 경영' 가르치는 경희사이버대 e-비즈니스학과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13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정보문화예술 ▲사회과학 ▲국제지역 ▲경영 ▲호텔관광외식 등 5개 학부 18개 학과에 지원 가능하며, 대학원은 현재 모집 중으로 내달 12일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02)959-0000, 홈페이지 www.khcu.ac.kr/ipsi, 대학원(02) 3299-8808, 홈페이지 grad.khcu.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리더십 센터·마케팅 센터 중심 특성화 프로그램 탁월
매년 졸업생 100명 중 20% 이상 대학원 진학 '독보적'

◆ 최초와 최고를 달리는 e-비즈니스학과

경희사이버대 e-비즈니스학과는 '최초'와 '최고'란 수식어가 어울린다.

2001년 개교 이래 사이버대학 최초의 팀 프로젝트 도입, 최초의 스터디 동아리 출범, 최초의 조기 졸업생 배출, 최초의 대학원 진학 등 수많은 기록과 역사를 새로 써왔다.

개교 당시 초대 학과장이었던 이준연 교수는 "학과와 학생들의 최고를 향한 도전 정신은 필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고 뿌듯해 했다.

◆ 공부와 사업 모두 뛰어난 멀티 플레이어

학과의 이 같은 지원과 학생들의 학구열로 e-비즈니스학과는 경희사이버대 주최 학술제에서 3회 연속 수상의 쾌거를 올렸다.

2004 대한민국창업대전 금상을 수상하는 등 교내뿐 아니라 교외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였다.

학구적인 분위기는 e-비즈니스 재학생의 높은 대학원 진학률로도 이어진다.

이 학과장은 "매년 100여 명의 졸업생 중 20%가 대학원에 진학한다"면서 "사업과 학업 등 각 분야에서 면모를 보이는 학생들은 우리 학과의 큰 자랑"이라고 밝혔다.

/장성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 개별학과 및 대학원 개설전공

모집단위(학부)	학과
정보문화예술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구 정보통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공공서비스경영학과 (구 행정학과)
국제지역학부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 (구 외식농수산경제학과)
대학원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관광레저항공경영 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e-비즈니스학과 특성화 사업

1. 성공사례집 발간
   경영 이론의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이론과 실제에 모두 능한 리더를 배양한다.
2. 글로벌 엑설런트 프로그램
   글로벌 현장 체험, 글로벌 시장 분석, 시장 개척 실습을 통해 국제 감각을 길러준다.

경희사이버대 e-비즈니스학과를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들

독수리 타법으로 공부 지금은 모교에서 강의

2001년 e-비즈니스학과 개설 1기 입학생인 박경신(44)씨. 컴퓨터의 '컴'자도 몰랐던 박씨는 입학 후에야 컴퓨터를 구입해 독수리 타법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01학번 박경신씨

뜨거운 학구열을 보인 박씨는 대학원에 진학해 경희대 무역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컴퓨터 문외한이었던 박씨는 현재 대학에서 2년째 학부 강의를 맡는 어엿한 교수님이 됐다. 박씨는 "동기들과 교수님의 든든한 지원이 공부를 계속한 원동력"이라며 "내가 받은 것들을 이제 학과 후배들과 제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학교서 배운대로 사업 폴란드 대통령상 수상

김승철(53)씨는 사업을 하던 중 경영학 공부의 필요성을 깨닫고 경희사이버대 e-비즈니스학과에 입학했다.

02학번 김승철씨

김씨는 "내 경험만 믿고 사업을 해왔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체계적인 경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론과 실무에 두루 통달한 그는 성공적인 사업 운영으로 '폴란드 대통령상'까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김씨는 "학과 공부를 시작으로 고려대 MBA 석사 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었다"며 "후배들의 성공 사례담이 계속 들려오길 바란다"고 웃었다.

일단 선택했으면 올인 기술사 자격증 취득해

대한민국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증 중 가장 높은 난이도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 송은섭(42)씨는 자랑스러운 e-비즈니스학과 동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05학번 송은섭씨

송씨는 "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기업 경영에 대한 혜안을 얻었다"고 밝혔다. 자격증 준비와 학업 병행에 힘든 시절도 있었지만 송씨는 "일단 무언가를 하기로 결심했다면 올인하는 자세가 필수"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고민에 빠질 때 '아 자! 화이팅!'을 외치며 매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 경영노하우 접목 다이어리 회사 대성공

사업을 준비하던 이영희(41)씨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영 노하우 독학에 한계를 느껴 경희사이버대에 입학했다.

07학번 이영희씨

이씨는 "경희사이버대 e-비즈니스학과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만을 모은 곳"이라며 "오히려 오프라인 대학보다 스터디 활동과 특강이 활발하게 이뤄진다"고 귀띔했다. 또 "학교 생활 덕분에 현재 다이어리 제작 관련 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경희사이버대 입학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라고 추천했다.

인터파크 이 주의 추천 도서

19세기로 간 황석영 동학에 꽂히다

여울물 소리 황석영/자음과모음

1962년 『입석부근』을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한 황석영이 등단 50주년을 맞았다. 그의 나이 쉰살. 그의 인생은 단 한순간도 평범했던 적이 없었다. 황석영의 발자취는 우리의 근현대사와 항상 함께해왔다.

황석영은 당대 역사의 큰 물줄기 속에서 단 한 번도 치열한 현실을 피하지 않고 맞서며 주옥같은 작품들을 탄생시켰다. 그리고 이제 내 등단 50주년을 기념해 자신을 돌아보며 19세기의 '이야기꾼'에 대해 집필한 자전적 작품 『여울물 소리』로 독자들을 찾아왔다.

『여울물 소리』는 외세의 신문물이 들이치며 봉건적 신분 질서가 무너져가던 격변의 19세기를 배경으로 이야기꾼 '이신통'의 일생을 뒤쫓는 내용으로 동학과 이야기꾼이라는 존재를 큰 축으로 하고 있다. 19세기는 세도정치의 삼정문란으로 봉건왕조가 무너져가던 때로, 신분의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제국주의 외세의 개입으로 좌절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동학은 민중의 자생적 근대화 의지가 담긴 사상이었고, '이야기꾼'은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장 잘 나타내는 존재로 이신통을 통해 작가의 담론을 펼쳐낸다. 대하소설을 써도 충분할 정도다.

이런 방대한 작업을 단 한 권으로 집필하는 과정에서 작가는 진정한 압축의 미를 보여줬다. 그만큼 밀도 있고 단단한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또한 동학, 전기수, 강담사, 작자 미상의 수많은 필사본 소설, 타령 등 다채로운 소재들은 소설 곳곳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며 독자들에게 독서의 재미를 선사한다.

화제의 신간

엄마, 사라지지 마

한설희/북노마드

늘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머무를 것 같던 이들. 하지만 늙은 우리 곁에 늘 있지만 언젠가는 떠나게 될 엄마를 담은 포토 에세이집이다. 카메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선 모녀에게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들만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공감이 엿보인다. 서서히 엄마의 삶이 되어가는 딸의 아름다운 시선을 책을 통해 만나보자.

2013-2014 세계경제의 미래

해리 덴트, 로드니 존슨/청림출판

세계적 경제 예측가 해리 덴트가 전하는 궁극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일본의 장기 불황을 정확히 예측했던 저자는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며 이 같은 조정기에 살아남으려면 개인과 기업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전략을 소개한다. 향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한 책이다.

'신과 함께' 신화편 세트

주호민/애니북스

2010년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신과 함께'가 제3부 신화편을 마지막으로 완결된다. '한국 신화'라는 참신한 소재와 인간적인 캐릭터의 매력, 재치 있는 유머코드로 많은 독자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이끌었던 작품으로 2013년 하반기에 영화로도 개봉될 예정이다.

속 시원한 만남

"지구 반대편 내딸, 아그네스"
배우 김정화의 나눔 이야기

배우 김정화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그녀의 에이즈 걸린 딸 아그네스가 만나 가족을 이룬 가슴 따뜻한 이야기 '안녕, 아그네스!' 출간 기념 독자와의 이야기 시간을 마련한다.

일시: 2012년 12월 12일(수) 오후 7시30분
장소: 안국동 월화공간 책빛

비스킷 신간(eBook)

질문이 답을 바꾼다

앤드루 소벨, 제럴드 파나스 / 어크로스

답을 바꾸는 질문이 담긴 33개의 스토리.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 줄 326개의 탁월한 질문들이 섞여 등장하는 33개의 강력한 스토리에는 감동적인 우정의 현장이 담겨 있다.

김미화의 웃기고 자빠졌네

김미화 / 웰다치미디어

KBS와의 갈등, MBC 하차, 사찰 등 풍파를 겪으면서 '개념 시민이 된 보통 사람' 김미화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에세이다. 그녀의 이번 에세이는 잔잔한 여운과 감동을 남기기에 충분하다.

이 주의 특가 도서

디어미 데스티니/시공사

대한민국 국내외 톱스타들과 주요 인물들을 인터뷰해온 저자가 독자들을 향해 질문을 던진다. A부터 Z까지 각 챕터마다 독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질문들 실어 읽는 재미를 더했다.

판매가 1만3800 -> 6900원 (50% 할인)

우든북스 10권 세트

앤서니 애슈턴 외/시스테마

2007년 뉴욕 할 권소 최고상 수상에 빛나는 작품으로 우주의 비밀, 수학, 음악의 아름다움이 섬세한 일러스트와 함께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세련된 북 디자인으로 소장 욕구를 높여준다.

판매가 7만8000 -> 3만9000원 (50% 할인)

판타지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10년만에 밝혀지는 '절대반지'의 비밀

영화 100년 역사상 최초, 사상 최강 영상 혁명
48프레임, 돌비 아트모스 사운드 도입

전 세계 1억 부 이상 판매 판타지 거장 J.R.R. 톨킨 원작
완벽한 걸작, 우리 시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위대한 이야기

마침내 서막이 열린다! 장대한 상상력의 절정
새로운 판타지 시리즈 3부작 제1탄

압도적 스케일, 거대한 크리쳐의 향연, 대서사 스토리
사나운 용 스마우그에게 빼앗긴 왕국을 되찾기 위한 원정대의 모험

〈반지의 제왕〉 피터 잭슨 감독

호빗 뜻밖의 여정

HOBBIT

MGM

12월, IMAX 대개봉

김대리도 제의 받았어?

관리자보다 실무자 스카우트 활발…하반기 공채는 전자-금융 '명암'

"취업하기 힘드네" 2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무역협회 주최로 열린 취업 창업 골드 페스티벌에서 구직 희망자들이 취업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올 하반기 전기·전자와 기계·자동차 분야의 채용이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내년도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로 인한 채용시장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는 하반기 공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등록된 채용 공고 15만14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전기·전자 분야가 1만9996건의 채용 공고가 등록돼 가장 높은 순위에 올랐다. 기계·자동차·조선·항공(1만9409건), 유통(1만8187건), 식품·외식(1만5998건), 금속·철강(1만4526건), 운송·운수·물류(1만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던 정보통신(IT) 업종이 넥슨의 NC소프트 인수, SK컴즈의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7위(9971건)에 그쳤고 명퇴 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금융(8909건)도 10위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직급별로는 면접 후 결정(5만5300건)이 가장 많았다. 대리(4만6726건), 사원(3만9489건), 과장(2만4347건)의 실무자들에 대한 러브콜도 이어졌다. 반면 관리자급인 차장(4478), 부장(634)에 대한 수요는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입사 후 즉시 현업에 투입해 실적을 낼 수 있으면서도 직급과 나이가 어려 비용부담이 적은 인재를 기업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내년도 취업시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유동적이다. 다음달 19일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채용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커리어 황은희 컨설턴트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라는 국내외 경제연구소의 전망처럼 내년도 채용시장도 현재는 먹구름이 잔뜩 낀 상태"라며 "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에 따라 일부 분야의 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분야의 채용에 적극적인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이번주 채용기업

한국먼디파마

'통증관리 선두' 다국적 제약기업

다국적 글로벌 제약기업인 먼디파마는 한국먼디파마 유한회사라는 이름으로 1998년 4월 국내에 상륙했다.

통증 관리의 선두기업이 되기 위해 효율적인 통증 및 질병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의 품질을 갖춘 뛰어난 의약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먼디파마는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을 공개채용 중이다.

모집부문은 의약정보담당자(Medical Representative) 전공 불문, 약학 및 이공계 전공자는 우대, MSL(Medical Science Liason·약학 및 이공계 전공 석박사 이상 우대), 프로덕트 매니저(제약마케팅 경력 3년 이상 호흡기 제품 유경험자 우대) 등이다. 지원자는 30일까지 한국먼디파마 채용 홈페이지(mundipharma.saramin.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커리어 제공

오늘 동덕여대·내일 배화여대서 캠퍼스 리크루팅

서울 중·북부지역 대학생을 위한 취업박람회가 열린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취업박람회 '리얼 캠퍼스 리크루팅-우리는 잡(Job)으로 간다!'를 27일 동덕여자대학교 학생회관과 28일 배화여자대학교 학술정보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중·북부 지역 대학 8개교(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한성대)와 전문대 7개교(동양미래대, 명지전문대, 배화여대, 서일대, 숭의여대, 인덕대, 한양여대)가 참여한다.

취업박람회에는 삼성생명, LIG손해보험 등 대기업과 한국전력, KOTRA 등 공기업들도 참여해 현지별로 20여 개 기업이 현장 면접과 채용설명회를 진행한다.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이미지메이킹 등 취업 컨설팅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특강도 마련했다.

당일 현장 등록을 통해 참가할 수 있으며 행사 참여도에 따라 나눠주는 경품도 풍성하다. /이국명기자

산업인력공단 경력 공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산업 현장의 인적자원개발(HRD) 전문가 19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한다.

공단은 기업·학교·훈련기관 등에서 HRD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경력·학력 등을 고려해 1~5급 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2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빅벡지 공채
2위 유통업계 채용
3위 한국어능력시험
4위 생산직 채용
5위 편의사

*11월 20~26일 인기검색 순위

주간 채용캘린더

날짜	기업
27(화)	권투비엠피 우석대학교
28(수)	대한조선(경력), 갑을오토텍 이마트(경력) 유일산전
29(목)	신영그린시스, 한국자산관리공사(경력)
30(금)	한국혁신 정스디시스템 코이카, GS ITM(신입)
12/1(토)	LG전자 네트워크엔에스(경력)
2(일)	LS전선(경력) 하루홈 SK하이닉스(경력)
3(월)	케어베이비 디티엔지니어링코리아 시즈그룹(경력) 도우코

*서류마감일 기준

*자료제공: 커리어(www.career.co.kr)

저소득층 인공관절 무료수술

지구촌가정훈련원 퇴행성관절염 말기환자 지원

치료비 부담탓 병키운 노년층에 희망의 손길

인공관절수술은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다. 연골이 다 닳아버려 뼈끼리 부딪히는 무릎 관절 사이에 인체에 해가 없는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만든 인공관절을 심어주는 수술이다.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1~2개월이면 큰 통증은 다 소실되며 지팡이 없이도 스스로 보행할 수 있게 된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일상생활은 물론 가벼운 등산 등의 운동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다.

인공관절수술은 통증 해소와 운동범위 확보에 효과가 큰 수술법으로, 현재로선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에게 시행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법이다.

하지만 모두가 원한다고 해서 쉽게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비싼 수술비 때문이다. 많은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해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육체 노동으로 인해 병이 깊어진 경우가 많다.

(사)지구촌가정훈련원은 이처럼 퇴행성관절염 말기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공관절수술을 해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퇴행성관절염을 앓고 있는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수혜 대상이다. 지구촌가정훈련원으로 신청자의 증상과 사연을 접수하면 된다.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사회복지단체 관계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담당자로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이 캠페인을 주최하는 지구촌가정훈련원(이하 지가원)은 1998년 행복의 첫째 조건인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설립됐다. 지난 13년간 부부행복학교, 위크숍 프로그램, 가정사역지도자 훈련 등을 진행해왔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컨설팅과 소그룹 운동을 펼쳐왔다.

지가원 이희범(사진) 원장은 "우리 사회의 기본 터를 이루는 것은 가정의 행복이고, 이러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며 "퇴행성관절염 말기 환자들에게 작게나마 희망과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문의: 031)697-0094

/송현아기자

◆ 인공관절수술이란

퇴행성관절염은 무릎 이하중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다 닳아 비려 뼈와 뼈끼리 부딪혀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60세 이상 노인 80%가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하지만 말기로 진행되면 극심한 통증은 물론 간단한 일상생활에서조차 제한을 받게 된다. 심한 경우 다리가 O자 형태로 휘게 되기도 하고 밤에는 통증으로 인해 잠을 이루기가 힘들어진다.

이처럼 약물이나 주사 요법 등으로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퇴행성관절염이 진행된 경우에는 인공관절치환술 만이 유일한 치료법이 된다.

인공관절치환술은 다 닳아버린 무릎관절을 금속으로 만든 인공관절로 대체해주는 수술이다. 통증을 경감시키고, 운동범위를 확보해 통증 없는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준다.

What's New health

유아 귀밑 체온계 BET1000

브라운이 유아의 체온을 정확하고 부드럽게 측정하는 유아용 귀밑 체온계 'BET 1000'을 선보인다. 혈액을 뇌로 전달하는 경동맥 분지가 지나는 지점인 귓볼 뒤쪽의 체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마 체온계보다 정확도가 높다. 부드럽고 가볍게 터치하기 때문에 자는 아이가 깨지 않을 정도로 유아의 거부감이 적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정상 체온은 녹색, 미열은 노란색, 고열은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문의: 1588-6237

피부복원 보습제 '인트린직'

동화약품이 손상된 피부장벽의 회복을 돕는 병의원용 보습제 '인트린직'을 출시했다. 단순히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겉과 속에 모두 작용해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모든 연령대의 건조한 피부뿐 아니라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

문의: 080)023-1897

중앙대병원 29일 '폐경 건강강좌'

중앙대학교병원이 오는 29일 오후 2시 병원 송암관 4층 동교홀에서 폐경 건강강좌를 개최한다.

대한폐경학회에서 지정한 11월 '폐경 여성의 달'을 맞이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산부인과 박형무 교수(대한폐경학회 회장)가 '안전한 호르몬 요법으로 젊게 사는 폐경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문의: 02)6299-2130

서울백병원 내달 4일 '빈혈 강좌'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충무아트홀 1층 컨벤션센터에서 '자꾸 어지러워요, 빈혈인가요?'를 주제로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강의는 서울백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명아 교수가 나이별 빈혈 증상에 따른 진단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철분제 복용 시 주의점과 일상생활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빈혈에 좋은 음식에 관해 강의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강의에 앞서 혈당 확인 등 건강 상담도 이뤄진다. 문의: 02)2270-0534

'뉴트리라이트 칼맥 디 앱' 뼈 건강 관련 정보 넘치네

뉴트리라이트가 뼈 건강에 대한 간편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뉴트리라이트 칼맥 디 앱'을 내놨다.

뼈 건강 기초 지식, 뼈 건강 자가 테스트, 뼈 건강 운동 동영상, 뼈 건강 식품 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뼈 건강 자가 테스트는 사용자가 본인의 과거 골절 경험, 음주 흡연력, 야외활동 여부, 비타민D 섭취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현재 뼈 건강 상태를 직접 진단해볼 수 있다. 뼈 건강 운동 동영상 항목에는 운동을 통해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영상을 담았다.

뉴트리라이트 마케팅팀 신은자 부장은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3초에 1명씩 발생하고, 한국 갱년기 여성 10명 중 3명이 골다공증으로 고통받고 있으나 뼈 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과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칼맥 디 앱은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김현정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임신중 알코올 노출 아이 뇌량 손상

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뇌량이 얇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야기엘로니안대학 영상의학과장 안드르제이 우르비니크 박사는 최근 임신 중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 200명과 그렇지 않은 아이 30명의 뇌량을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뇌량이란 두 대뇌반구 사이에서 오른쪽 뇌와 왼쪽 뇌를 연결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신경다발이다. 따라서 이 부위가 손상되면 양쪽 뇌 사이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정신 건강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르비니크 박사는 설명했다.

연구팀은 또 비정상 뇌조직을 탐지하는 비정확산강조영상(DWI)으로 이 아이들의 중추신경계 6개 부위를 관찰했다. 그 결과 태아 때 알코올에 노출된 아이들의 조직에서 물분자 확산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판명됐다. 뇌 조직에서 물 분자 확산 수치가 높아진다는 것은 신경장애나 뇌 조직 손상을 암시한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김현정기자

후회없을 국내외 겨울여행 다 모였네

여행업협회 '문화부 인증 우수여행상품' 117개 발표

여행이 잦은 연말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12/2013 우수여행인증상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업협회가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는 관련 학회·여행사 대표·소비자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위원회가 심사, 문화부가 주최·인증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여행상품인증제다.

올해 선정된 117개의 모든 상품들 또한 영업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어 여행사의 부도 또는 폐업 시 발생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

한국여행업협회 관계자는 "우수여행인증상품은 1등을 가려내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여행상품의 기준을 제공해 소비자 스스로 공정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2012/2013 우수여행인증상품은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여행 상품으로 확인하면 된다. 또 여행정보센터 사이트의 관심 여행사 검색을 이용하면 여행상품을 구입하려 하는 여행사가 등록관청에 등록된 적법 업체인지와 부도 및 기타 피해 보상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가입 유무에 대해서도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여행 후 여행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여행정보센터의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 접수하면 된다.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에 대해 안내 및 해결을 돕는 여행불편처리센터는 지난해 1139건을 처리했다. /박지원기자

천연한방샴푸 모리앤 KPGA스폰서로 활약

KPGA 공식 스폰서인 천연한방샴푸 브랜드 모리앤이 다양한 골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모리앤은 최근 치러진 '2012 신한동해 오픈'에 참여해 대회 관계자들과 갤러리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3년 만에 개최하는 '제11회 한일 여자 프로골프 국가 대항전'에 후원사로 참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도 모리앤을 알릴 계기를 마련한다.

특히 프로골퍼 단체 PGMA와 협약을 통해 다음달 3일 열리는 한국여자 프로골프 대상 시상식에서는 KLPGA대회 다승왕상을 시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모리앤의 모리턴 은 홍삼·당귀 등 천연 한약재를 주성분으로 두피와 모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샴푸와 헤어토닉 2종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www.ks1004.kr

'아쿠아리스타' 경품잔치

아스타리프트가 안티에이징&고보습 에센스 '젤리 아쿠아리스타'의 세계 뷰티 어워즈 6관왕 수상을 기념해 정품 판매가보다 더 많은 사은품을 증정하는 대규모 이벤트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온라인 소핑몰 롯데닷컴과 엘롯데에서 '젤리 아쿠아리스타' 구매 시 안티에이징 핵심 4종 샘플(5만7000원 상당)과 화이트닝 샘플 키트(6만6000원 상당), 파우치, 롯데시네마 영화 예매권 2장을 준다. 명품 사은품도 쏟아진다. 추첨을 통해 5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가방을 선물한다. 문의 www.astalift.co.kr·0801007-7161

CGV강남 고고파티 1탄

CGV강남이 복고를 콘셉트로 한 'CGV강남 고고파티 1탄 불타는 청춘의 야밤'(이하 CGV강남 고고파티)을 연다. 다음달 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개최되는 이번 파티는 2만원의 자유이용권으로 스파클링 와인과 최신 영화를 무제한 관람할 수 있다. 추억의 감성을 일깨우는 디제잉, 게임, 포토, OST 등으로 파티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행사 당일 오후 10시부터 1시간 동안 강남대로에서 사일런트 디스코 퍼레이드를 열어 무선 헤드폰을 끼고 소리 없는 댄스를 즐기는 새로운 형사를 진행해 강남역 일대를 들썩이게 할 예정이다.

내 피부의 오아시스, 신비의 황금액체 '에뮤오일'

최근 비싼 첨가제가 들어간 일반 화장품 대신 100% 천연물로 만들어진 천연화장품의 인기가 뜨겁다. 그 중 피부에 천연 광채를 선사한다는 '에뮤오일'이 단연 눈에 띈다.

에뮤(Emu)란 오스트레일리아 특산의 대형 주조류를 말한다. 체내에 많은 수분을 보유하고 20파운드 가량의 지방을 지닌 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에뮤는 온갖 종류의 충격과 상처에 대해 신청한 회복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에뮤에서 얻어진 지방질을 모아 사용한 것이 에뮤오일의 기원이다. 에뮤오일은 피부 건강 및 손상을 개선하고 건조함으로 인한 거친 피부 자극을 완화시킨다.

또한 침투력이 매우 좋으며 에뮤오일 성분인 필수지방산인 리놀렌산, 알파리놀렌산이 보습성을 유지시켜준다.

이미 에뮤오일의 특성과 효능은 헐리웃 스타들 비롯 세계 유명인 및 연예인, 각종 언론 등을 통해 '신비의 황금액체'로 무수히 언급되어 왔다.

하지만 일부 수입 에뮤오일은 고가일 뿐 아니라 함유량이 매우 작다. 이러한 난점을 보완한 콤브레 'Cambre 100% Natural 에뮤오일'이 주목을 받고 있다.

콤브레는 에뮤오일을 호주에서 수입, 자체 브랜드화 시켰기 때문에 가격의 거품을 뺐고, 함유량은 99%로 대폭 증가시켰다. 에뮤오일 특유의 향 완화를 위한 천연 라벤더오일 1%만이 첨가되었다.

티켓몬스터에서는 27일부터 콤브레 에뮤오일 30ml를 53%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 건조함에 피부관리가 어렵다면 콤브레 에뮤오일을 만나보자.

감성브랜드 '바블링 브룩' 제안하는 2012 겨울 니트 스타일링

영하의 날씨가 이어지면서 겨울이 성큼 다가왔다. 거리에는 벌써 두꺼운 아우터를 껴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다. 하지만 너무 두꺼운 옷을 껴입으면 그만큼 활동성이 떨어진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니트'다. 니트는 얇아도 보온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날씨에 제격이다.

니트는 디자인이 비슷비슷하고 얇고 평범해 보이기 쉽다고 생각한다면 오산. 다양한 디자인, 컬러, 트렌드의 니트라면 보다 멋진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국내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www.tmon.co.kr)'에서 만든 의류 브랜드 '바블링브룩'이 올 겨울 니트 스타일링 제안에 나섰다.

평범한 싸인의 니트가 심심하면 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연출한다면 독특한 소재나 싸인의 니트는 보다 스타일리쉬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특히 올 겨울에는 일명 '보글이 니트'라고 불리는 독특한 재질감의 부클 니트가 인기를 얻을 전망이다. 또한 굵은 선로 짜인 펑키한 니트나 절개가 들어간 디자인, 언밸런스 컷, 헤던이 가미된 니트는 패셔너블한 분위기를 즐겨 입기다.

박시하고 풍성한 핏의 니트는 스키니진, 레깅스 등의 하의와 매치하면 귀여우면서도 밸런스 있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다. 만약 니트 특유의 박시함이 싫다면 울, 캐시미어, 앙고라 등의 소재의 슬림핏 니트를 선택해보자.

티켓몬스터는 바블링브룩 니트 35종을 특가판매한다. 9,9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부터 인기 니트를 만나볼 수 있으며, 3개 구입시 겨울 필수품 기모레깅스를 증정한다. 5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무료배송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족발의 신세계" 카페형 족발·보쌈&호프 전문브랜드 소담애

– 신선한 원재료 사용, 순수 100% 국내산 생족만을 사용

소담애는 '음식이 넉넉하며 맛을 적히다는 뜻의 '소담하다'와 사랑愛(애)의 합성어. 족발에 대한 선입견을 깨고 프리미엄 음식으로 격상시키면서 젊은 소비층을 새롭게 끌어들인 카페형 족발 전문점이다.

기존의 족발집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모던하고 빈티지한 인테리어를 강조하였으며, 원목의 느낌을 살린 테이블과 은은한 조명이 더해져 족발을 더욱 맛있고 이색적으로 즐길 수 있다.

소담애 관계자는 "좋은 재료가 훌륭한 음식을 완성시키듯 최상급 국내산 족발만을 사용하고, 몸에 좋은 한방재료는 물론 각종 야채와 과일을 첨가한 특제육수로 삶았습니다. 소담애가 자랑하는 소담족발은 천연의 맛과 향이 살아 있어 부드럽고 쫀깃합니다."라고 말하며 신선한 원재료 사용을 강조하였다.

모던 스타일의 세련된 공간으로 족발 업계에 새로운 획을 그은 "프리미엄 카페형 소담애"는 대전을 중심으로 청주, 충주, 천안, 전, 공주 등지에 약 30개의 매장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서울 강남역점 CGV 뒤편과 홍대점에 직영점을 오픈하면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 종로, 마포, 영등포 등 주요 상권에서도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소담애는 오는 30일까지 티켓몬스터(www.tmon.co.kr)를 통해 3인이상 방문시 주먹밥 무료, 4인이상 방문시 잔치국수 무료 등의 쿠폰을 판매하고 있다. 기존에 맛 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명품 족발, 보쌈을 찾는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자.

(*가맹점모집 1555-3403 /홈페이지 www.sodamae.com)

Star bag

박효신 개인 회생 신청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소속사에 따르면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그는 법정 이자까지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하며 채무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 같은 결정을 했다.

하정우 연출작 크랭크인

하정우가 감독 데뷔작 '롤러코스터'(가제)로 확정 짓고 26일 첫 촬영을 시작했다.

한류스타 마준규(정경호)가 탄 비행기가 예기치 못한 태풍을 만나 추락 위기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코믹 소동극으로 하정우가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맡았다. CJ엔터테인먼트가 배급을 맡아 내년 하반기 개봉할 예정이다.

홍은희 선덕여왕 후임 낙점

배우 홍은희가 교통사고로 최근 하차한 박주미 대신 KBS1 사극 '대왕의 꿈'의 선덕여왕 역에 투입된다.

제작진은 26일 "기존 선덕여왕의 이미지와 차이가 나지 않아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연기력이 검증됐다"고 캐스팅 배경을 전했다. 홍은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수원에서 열린 대본 연습에 참석했다.

싸이 극비 입국 건강검진

가수 싸이가 23일 극비리에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소속사에 따르면 공식 스케줄은 없으며 장기간 해외 일정으로 피로가 누적돼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입국했다. 한의원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28일 태국에서 시작되는 해외 일정에 앞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배우 휴 잭맨(왼쪽)과 제작자 캐머런 매킨토시가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영화 '레미제라블' 공식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발장역 탐나 먼저 러브콜"

'레미제라블' 휴 잭맨·캐머런 매킨토시 내한 인터뷰

"한국 짱, 연아 짱" 뮤지컬 영화 첫 노래 라이브 녹음

할리우드의 친한파 톱스타 휴 잭맨(44)과 뮤지컬의 '제왕' 캐머런 매킨토시(66)가 자신들이 주인과 제작자로 참여한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의 홍보를 위해 26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내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다음달 하순 개봉에 앞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원작 뮤지컬과 잭맨의 팬 500여 명이 이들의 얼굴을 보러 운집해 장사진을 이뤘다.

 # 휴 잭맨 "장르 불문 공감이 중요"

SF 액션 블록버스터 '엑스맨' 시리즈의 울버린 역으로 스타덤에 오른 잭맨은 뮤지컬 '더 보이 프롬 오즈'의 주인공을 열연해 2004년 '연극·뮤지컬의 아카데미'로 불리는 토니상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을 만큼 무대 연기에도 일가견이 있다.

주인공 장발장 역으로 출연한 그는 "연출자인 톰 후퍼 감독에게 먼저 출연을 자청했을 정도로 탐나는 캐릭터였다. 진정한 영웅으로 사랑·희망·용서·정의를 얘기하기 때문"이라며 "애니메이션 '가디언즈'의 더빙과 뮤지컬 영화 등 장르를 불문하고 최선을 다해 관객과 공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2006년과 2009년 내한 당시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축구 대표팀을 응원했으며 서울시 홍보대사 위촉을 흔쾌히 수락하는 등 남다른 한국 사랑을 과시했던 그는 '피겨여왕' 김연아가 새로운 레퍼토리의 배경음악으로 '레미제라블'의 수록곡을 골랐다는 소식에 "김연아에게 한마디 하겠다. '레미제라블'의 음악을 선택했으므로 다음달 열릴 대회에서 반드시 우승할 것이다. 김연아 짱!"이라며 "20년 후 '레미제라블 on 아이스'쇼로 제작되면 나와 러셀 크로우랑 함께 출연하자"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 매킨토시 "잭맨 위해 계획 미뤘다"

영국 출신의 매킨토시는 '레미제라블'을 포함해 세계 4대 뮤지컬로 알려지는 '오페라의 유령' '미스 사이공' '캣츠'의 제작자로 잘 알려져 있다. 1996년에는 뮤지컬 산업에 끼친 공로를 인정받아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기도 했다.

이번 작품으로 처음 영화 제작에 나선 그는 "'레미제라블'은 내가 25년 전 처음으로 제작한 뮤지컬인데 잭맨이 장발장을 연기할 때까지 영화 제작을 미뤘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 뒤 "코제트 역의 앤 해서웨이는 엄마가 '레미제라블'의 뉴욕 공연에 출연한 적이 있는 뮤지컬 배우다. 또 자베르 경감 역의 러셀 크로는 무명 시절 뮤지컬 오디션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며 초호화 캐스팅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공개했다.

뮤지컬 영화의 일반적 제작 방식인 립싱크 대신 현장에서 출연진이 실제로 노래를 부르며 연기하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음악을 통해 감정과 줄거리를 전달해야 하는데 촬영 수개월 전 녹음한 노래로 연기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다행히 뮤지컬과 함께 성장한 배우들이 있어 영화로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뮤지컬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16년 전 '레미제라블'이 (한국에서) 초연됐을 때와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배우들과 스태프의 재능이 뛰어나 앞으로 활짝 발전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디자인/김지연

27th, November
Christmas Ticket Open

올 겨울, 세기의 러브스토리가
당신의 심장을 두드립니다.

DAS MUSICAL

황태자 루돌프

2012.11.10 ~ 2013.1.27 충무아트홀 대극장 명당찾기 02-2230-6601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안재욱, 임태경, 박은태, 옥주현, 최유하, 김보경, 민영기, 조휘, 박철호, 류창우, 신영숙, 오진영 외

vbw EMK MUSICAL COMPANY

김장훈 USB 앨범 국내 가수론 처음

가수 김장훈이 국내 가수 중 처음으로 USB 형태의 앨범을 출시한다.

다음달 6일 발표할 10집 수록곡을 4GB 용량의 USB에 담는다. 전문 감상용 웨이브파일과 차량용 음악 감상을 위한 MP3 파일 두 가지 형태로 수록하며 뮤직비디오도 함께 담는다.

소속사 측은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다 채워도 3GB 이상 여유 공간이 남아 앨범의 소장 가치와 실용성을 함께 갖췄다"며 "가격도 1만5000원 전후로 책정될 예정이라 경쟁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오래전부터 공연 연출에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등 과학과 음악의 결합에 관심을 기울였다. 1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12'에 다녀온 후 IT 회사들과 손잡고 기술을 개발하며 뭔가 질감을 위해 노력했다.

김장훈은 10집 발표 뒤 다음달 20~25일 잠실체육관에서 김장훈 원맨쇼-아듀 공연을 연다. /유순호기자

이동건, 씨엔블루와 한솥밥

배우 이동건이 FT아일랜드·씨엔블루가 소속된 FNC엔터테인먼트와 계약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윤진서에 이어 이동건과도 계약하면서 연기자 부분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실력 있는 가수와 연기자를 두루 보유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건은 3월 전역해 차기작을 검토 중이다.

시크릿 디지털 싱글 발표

여성 그룹 시크릿이 다음달 4일 디지털 싱글 '토크 댓'을 발표한다.

이들은 히트곡 '매직'에서 호흡을 맞췄던 작곡가 신사동호랭이와 3년 만에 함께 작업했다. 다음달 4일 컴백을 앞둔 가운데 메인 보컬 송지은(사진)의 티저 이미지를 26일 공개했다. 티저에서 그는 강렬한 레드 컬러의 롱 헤어로 한층 성숙한 매력을 드러냈다. /유순호기자

폭우속 2만3000명 외쳤다, K-팝

'SM타운 라이브' 태국 공연 열려 … 싱가포르선 2만6000명 동원 '최다'

톱가수들이 싱가포르와 태국에 100곡 이상을 부르는 K-팝 병폭을 퍼부었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의 합동 공연인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 III'가 25일 태국 방콕의 대규모 야외 공연장인 SCG스타디움에서 열렸다. 강타·보아·동방신기·슈퍼주니어·소녀시대·샤이니·에프엑스·엑소 등 K-팝 대표 주자들이 총출동해 화려하고 완성도 높은 무대로 현지 팬들을 매료시켰다.

가수들은 각자 다양한 태국어 인사와 코멘트로 현지 팬들과 가까이 소통했다. 곤돌라·이동차 등을 활용해 야외 공연장 곳곳을 누비며 2만3000여 팬을 열광시켰다. 관객들 역시 형형색색의 야광봉과 한글 LED 플래카드를 준비해 완벽한 한국어 응원법으로 화답했다.

공연 중반부터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무대와 객석 모두 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관객들 모두 마지막까지 열렬히 환호하는 등 다른 공연보다 분위기가 뜨거웠다.

가수들은 4시간 동안 총 51곡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사했다. 공연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렸다.

공연 열기는 23일 싱가포르의 더 플로트 엣 마리나 베이에서부터 달아올랐다. 'SM타운 라이브'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어 싱가포르 공연 사상 최다 관객인 2만6000여 명이 들었다.

소속사는 "더 플로트 엣 마리나 베이는 주로 국가적 행사가 열리는 장소로 상업적인 공연 허가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2AM, 여장·안무도 판타스틱!

걸그룹 댄스 메들리 아시아 팬 사로잡아

보컬 그룹 2AM이 걸그룹 댄스 메들리로 아시아 팬을 사로잡았다.

2AM은 24~25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데뷔 후 첫 아시아 투어 '더 웨이 오브 러브'의 시작을 알렸다. 3년째 연말 공연을 열어 온 이들은 "매번 공연으로 보컬형 아티스트의 저력을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차별화된 무대를 준비했다.

아시아 투어를 위해 기획한 K팝 메들리는 가장 큰 화제를 낳았다. 소녀시대 태티서의 '트윙클', 시크릿의 '포이즌', 2NE1의 '아이 러브 유',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를 어쿠스틱 버전으로 편곡해 들려줬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멤버 각자의 색깔이 어우러져 "원곡보다 낫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특히 씨스타의 '나 혼자' 무대에서는 여장을 하고 나와 안무까지 완벽하게 소화했다. 한쪽 발등 골절을 당한 임슬옹은 붉은 시스루 드레스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올라 관객은 물론 나머지 세 멤버들까지 감동시켰다.

예의에 여창민과 임슬옹의 듀엣 무대, 멤버들의 솔로 무대 등으로 다양한 재능을 선보였다. 이날 공연에는 국내와 일본·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온 6000여 명의 관객이 몰렸다. 2AM은 다음달 1일 말레이시아에서 아시아 투어 두 번째 공연을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이승기(위)와 윤종신

윤종신·이승기 예능감 눈부셔라

'1박2일' '런닝맨' 각각 특별출연 맹활약

윤종신과 이승기가 서로의 '예능 친정집'을 방문해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윤종신은 25일 방송된 KBS2 '해피선데이-1박2일'에 특별출연해 기녀린 몸으로 겨울 바다에 입수하며 섬마을 음악회 특집의 성공을 기원했다. 그의 활약에 힘입은 '1박2일'은 시청률 19.9%(AGB 닐슨미디어리서치)를 기록하며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을 1.6%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2008~2010년 '런닝맨'의 전신 코너인 '패밀리가 떴다'를 통해 '예능늦둥이' '깐족' 이미지를 얻었던 그가 동시간대 방영되는 라이벌 프로그램에 출연해 친정을 꺾는 일등공신이 된 것이다.

반면 '런닝맨'에는 20대의 절반을 '1박2일'과 함께한 이승기가 2주 연속 스페셜 게스트로 출연해 눈길을 모았다.

그는 지난주 "런닝맨이 재밌어도 맘 못하는 '송길동'으로 지냈다"고 고백한 데 이어 이날 방송에서 미션의 열쇠를 쥔 007 요원으로 변신해 악당 박신혜에게 아쉽게 패배하는 명장면을 연출했다.

/권보람기자 kwon@

'주름·기미·잡티·모공' 바르고 문지르면 깨끗해진다!

기미, 잡티, 주름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 'MS-Ⅱ+ 골드'

(메조 솔루션 플러스 골드)

또한 '인삼 캘러스 배양근 추출물과 포도 캘러스 추출물'은 식물에서 추출한 기능성분으로서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탱탱하게 피부탄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1주일에 한 번, 문지르고 발라주면 깨끗해지는 피부

'MS-Ⅱ+ 골드' 솔루션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피부관리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다. 1주일에 1회 정도, 6~10주에 걸쳐 메조롤러로 얼굴을 문지른 후 'MS-Ⅱ+ 골드'를 발라주면 다음날 아침에 몰라보게 환하고 깨끗해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늘어진 피부, 넓은 모공, 늘어나는 잔주름, 기미, 잡티 등으로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MS-Ⅱ+ 골드솔루션'을 이용해보기 바란다. 이 솔루션이야말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피부의 화사함을 선사해줌은 물론 스트레스와 바쁜 업무에 지친 마음까지도 화사하게 만들어주기에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피부유전자검사 첨단 노하우로, 고기능성 'MS-Ⅱ+ 골드'를 완성하다!

피부전용 멀티 고기능성 솔루션 'MS-Ⅱ+ 골드'를 개발한 (주)크라운진은 생명공학 시대를 선도할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생명과학을 전공한 연구소장과 연구원들을 영입, 높은 서비스 품질을 위하여 품질경영시스템의 국제공인인증 ISO9001:2000을 획득하였다.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탄력에 도움을 주고 주름개선, 피부보습, 피부재생 및 진정은 물론 기미와 잡티까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MS-Ⅱ+ 골드'의 개발은 모두 다 이러한 (주)크라운진의 선진 생명공학 기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부과학의 결실 MS-Ⅱ+ 골드 당신이 상상했던 그 이상입니다"

▶여름철 기미, 잡티, 모공, 주름 잡는 고기능성 소재 함유!

고온다습한 날씨와 냉방기의 무리한 사용으로 인한 실내외의 극심한 온도차이로 피부저항력이 떨어지고 땀과 피지 같은 피부 분비물이 많아져 쉽게 번들거리며 자외선의 양도 많아 피부에 불리한 계절이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시키고 색소침착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잡티와 주름까지 유발시킨다. 'MS-Ⅱ+ 골드'는 여름철 주름개선, 보습효과, 피부탄력 및 피부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주며, 멜라닌 색소 생성의 예방과 이미 생성된 기미, 잡티까지 관리해 칙칙하고 얼룩진 피부톤을 맑고 투명하게 가꿔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제품은 출시와 함께 탄력을 잃은 피부, 칙칙하고 얼룩진 피부, 기미, 잡티, 모공, 주름 등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눈가 얼굴 목 주름개선, 기미 주근깨 잡티 등 미백기능으로

10년 전 피부보다 더 깨끗하게! 더 젊게!

▶식약청이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증한 'MS-Ⅱ+ 골드 솔루션'

'메조테라피 전용 솔루션 MS-Ⅱ+ 골드'는 벤처기업 및 국제공인 인증(ISO 9001:2000)을 획득한 (주)크라운진이 피부유전자 검사를 통한 노하우로 개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증받은 제품이다. 'MS-Ⅱ+ 골드'의 주요 성분은 고기능성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와 인삼 캘러스 배양근 추출물, 포도 캘러스 추출물로 이루어져 있다. 고기능성 상피세포 성장인자 'EGF'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기능 강화를 통해 주름 없이 매끈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세럼 무료증정 이벤트!

11월30일(금) 마감!

지금 MS-Ⅱ+ 골드를 구매하시는 분께 식약청기능성인증 MS-Ⅱ+ 세럼과 솔루션 1병을 선착순 무료 증정합니다

문의 02)3672-0014

노인심리상담 급격히 늘어 … 각종 노인시설 등에 심리상담원 증대!

학력, 연령, 경력, 성별에 상관없이 응시가능 / 4과목 객관식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합격 / 취업지원 및 개업안내, 프리랜서 활동가능

■ 노인심리상담사란

노인심리상담사는 노인들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당면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관심사를 전문 상담기술과 기법을 이용해 관심 있게 다루어 줌으로써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행복한 노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고 노인들이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 또는 예방하는 전문인으로서 이강사회교육원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한 자를 노인심리상담사라 한다.

■ 응시자격 및 전망

노인심리상담사의 응시자격은 학력, 경력, 연령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며, 시험과목은 노인심리상담 이론을 포함하여 4과목으로 평균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이다. 합격후의 진로는 각 분야에서 다양하지만 특히 여러 노인시설이나 일반 병·의원에 심리상담 전문요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많은 수요가 예측된다. 본 자격에 대한 더 많은 시험정보는 아래 전화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모두교육원

문의처 / (02)742-1504

5·18영화 '용두사미'

Film Review
/조순조기자 sunmi@metroseoul.co.kr

■ 26년

영화 '26년'은 화제작답게 시작부터 신선한 시도로 몰입도를 끌어올린다. 실제 배우의 연기 위에 애니메이션을 입히는 로토스코핑 기법을 이용해 7분여 동안 1980년 계엄군에 짓밟힌 광주의 참상을 실사보다 더욱 사실적으로 담는다.

국가대표 사격선수를 꿈꾸는 미진(한혜진), 교통 순경 정혁(임슬옹), 조직 폭력배 진배(진구)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2세로 이 같은 과거의 슬픔을 떨쳐내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간다. 2006년 어느 날 이들 앞에 대기업 회장 김갑세(이경영)와 그의 비서 주환(배수빈)이 나타나 광주 학살의 주범인 '그 사람'(장광)을 암살하자고 제안한다.

복수에 불타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청동 같은 요새를 뚫기 위해 모의하는 과정은 흥분감을 불어넣는다. 동시에 국민의 혈세와 기득권의 비호 아래 호의호식하는 '그 사람'의 역설적인 상황을 배치하면서 공분을 끌어 올린다.

영화는 액션 스릴러의 오락적 재미를 주려 하지만 역사적 부채의식을 벗어놓고 본다면 장르적 매력은 크지 않다. 1차 암살 시도를 그린 장면에서 최고조에 이른 긴장감은 더욱 조여야 할 후반부에서 점점 풀어지기 시작한다. '그 사람'의 저택에서 벌어지는 영화의 클라이맥스에서는 치밀한 계략은 사라진 채 수십 명의 인물이 한데 엉키는 소동만 펼쳐진다.

열리하게 끌고 온 메시지를 후반부에 대사를 통해 한 번에 몰아넣는 계몽적 연출도 조금은 부담스럽다.

연합으로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영화가 용두사미로 빠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15세 이상 관람가. 29일 개봉.

박진희·최정윤·이하늬 '헤이츠' VIP시사회 간다

박진희·최정윤·이하늬·박효주 등 미모의 여배우들이 호러 파티에 초대받았다.

이들은 26일 서울 강남의 한 복합상영관에서 열리는 공포 스릴러 '헤이츠' VIP 시사회에 참석한다.

박진희　이하늬

이 영화의 홍보 관계자는 26일 "호러 마니아를 자처할 만큼 공포영화를 무척 좋아해 선뜻 초대에 응했다"고 귀띔했다.

다음달 6일 개봉될 '헤이츠'는 한 소녀가 10년 전 이웃집에서 일어났던 살인 사건을 파헤치던 중 거대한 음모에 휘말린다는 내용이다. '헝거게임' '판엠의 불꽃'에서 열연한 제니퍼 로렌스가 주인공 엘리사를 연기한다.

/조성준기자 when@

일본 3대 가요제서 한류스타들 못본다

독도영유권 문제 현지정서 때문인 듯

카라가 올 4월 요코하마아레나에서 공연했을 당시 모습

독도 영유권 문제로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일본의 3대 연말 가요제가 모두 한류스타들의 출연을 배제했다.

일본 언론 니칸스포츠는 26일 '한류 제외된 홍백 출장 가수 발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달 31일 열릴 NHK의 홍백가합전에 지난해 출장한 동방신기·소녀시대·카라 등을 포함해 한국 가수는 모두 출연하지 않기로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지난해 K-팝 붐을 타고 세 팀이나 출장한 데 이어 올해도 기세 그대로 일본에서 활약했으나 독도의 영토 문제로 인한 현지 정서를 고려해 (NHK 측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22일 열린 요미우리TV의 '베스트 히트 가요제 2012'와 다음달 5일 개최될 후지TV의 '2012 FNS 가요제'에도 한국 가수의 출연은 제외됐다. /박현민기자 tsk0427@metroseoul.co.kr

인기 뮤지컬 한자리에 - '핫앤뉴뮤페' 개최

인기 뮤지컬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CJ E&M 공연사업부문이 주최하는 뮤지컬 페스티벌 '핫앤뉴뮤직'가 다음달 12일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킬 앤 하이드' '위키드' '드림걸즈' '잭 더 리퍼' '헤드윅' '캐치 미 이프 유 캔' 등과 내년 개막을 앞둔 신작기 음세에 '하이스쿨 뮤지컬' '써니' 등의 수록곡을 들려준다.

또 윤영석·이석준·홍지민·민영기·김선영·신영숙·김재범·박은태·성두섭 등 뮤지컬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드림걸즈'에 출연했던 개그우먼 안영미와 강유미도 참석한다.

2005년 한국뮤지컬대상 안무가상과 2008년 더뮤지컬어워즈 안무상을 수상하고 최근 '광화문연가'를 연출한 이란영 연출가가 총감독 및 안무를 맡았다. 문의 1588-0688

/박현민기자

wind8686@naver.com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통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1 What do you want? 원하는 것에 대해 말하기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e900.co.kr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샘플입니다.

긴 대화 훈련

▶ 우리말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각하면서 역할을 바꿔 가며 말해보세요.

상황 설명 〉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해리슨 씨나 쿠퍼 씨를 만나고자 하는 상황

A Good morning. How can I help you?
B We'd like to talk with Mr. Harrison or Mr. Cooper.
A I'm sorry, but 그분들은 둘 다 모두 지금 바쁘세요.
B I see. Can we speak to someone else?
A Mr. Clint can help you. Do you see those men over there?
B Yes. 어느 분이 클린트 씨에요?
A He is the one on the left.

정답 both of them are busy right now / which one is Mr. Clint?

생생영어팁

▶ I think I will... ~인 것 같아요.

우리말 습관 중에 ~인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런 표현이 영어에도 있습니다. 바로 I think..., I guess..., I suppose...로 시작하는 말이 ~인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등에 대해 말할 때에도 그냥 I will have a burger(전 햄버거를 먹을 겁니다)라고 하기보다 I think I'll have a burger(전 뭐 햄버거를 먹을까 하는데.) 정도로 말하는 것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TOEIC Reading ▶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Cancellations must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policy that is _______ on the Skowronski Hotel's Web site.
(A) outline (B) outlining
(C) outlines (D) outlined

02 Please read the instructions _______ start to finish before attempting to replace the air filter yourself.
(A) of (B) from
(C) by (D) during

01. 취소는 스코브론스키 호텔의 홈페이지에 설명된 방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해설 is 뒤에 동사가 올 때는 분사인 (B) outlining과 (D) outlined가 가능한데, 빈칸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수동태인 (D) outlined를 써야 한다.
어휘 cancellation 명 취소 in accordance with ~에 따라 policy 명 방침 outline 동 개요를 말하다
정답 (D) outlined

02. 공기 필터를 직접 교체하려고 하기 전에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해설 빈칸 뒤의 전치사 to와 함께 'from A to B'(A에서 B까지) 구문을 이루는 전치사 (B) from을 써야 한다.
어휘 instructions 명 설명서, 안내서 attempt to부정사 ~하려고 하다 replace 동 교체하다
정답 (B) from

TOEIC Speaking ▶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2. 사진 묘사하기

사람을 주어로 하여 묘사하기

사진 속 사람을 주어로 하여 묘사할 수 있습니다. 주로 현재시제 또는 현재진행시제를 사용합니다.

The teacher is wearing a hooded shirt. 선생님이 모자 달린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The teacher has a ponytail. 선생님은 하나로 묶은 머리입니다.
The students are sitting at their desks and **looking** at the projector screen. (동작 묘사)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프로젝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묘사하려는 인물의 신분을 알 수 없거나 정확하지 않다면 A woman, A man, People... 등으로 무난하게 주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A woman on the right is wearing a hooded shirt.
오른쪽에 있는 여자가 모자 달린 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Some people are sitting at their desks and looking at the projector screen.
몇몇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 프로젝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본 지면은 YBM의 콘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로또 1등 당첨은 '불행 1등 당첨'?

박상전의 트렌드읽기

필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로또를 처음 구입했다. 당시 온타리오 호수를 바라보면서 고요함과 평온함에 이끌려 토론토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됐는데 그중 하나가 로또에 당첨돼 영주권을 받는 것이었다. 2주 동안 두 번 로또를 샀는데 추첨을 기다리는 동안 막연한 설렘에 빠졌던 기억이 생생하다.

국내에 로또가 등장한 지 10년을 맞았다. 모르긴 해도 엄청난 사람들에게 작은 기대를 더 많은 사람에게 불운에 대한 실망을 안겨줬을 것이다. 가끔 뉴스를 보면 1등 당첨자의 인생역전이 아닌 악몽 방한을 접하게 된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복권당첨자가 겪는 현상인 듯하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권 배당첨자는 불운한 게 아니라 오히려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복권을 사더라도 맞으면 좋고, 정도의 기분전환용. 누군가의 말처럼 추첨일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설렘용일 뿐이니까.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복권을 사는 사람은 없다. 절체절명의 순간이 곧 올 거라는 불안함 때문에 구입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최근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부류를 보면 두 가지다. 하나는 좌불안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는 부류다. 이 사람들은 복권 1등 당첨의 저주에 대한 기사를 너무 많이 접한 탓이다.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좋은 일에 기꺼이 쓰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당첨금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해 사용하게 된 돈이라 믿는 부류다.

복권 당첨 사실을 동료나 친구는 물론 배우자에게조차 알리지 않는 사람은 행운을 거머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산산이 조각낼 시한폭탄을 끌어안게 된 셈이다. 당첨 즉시 사용처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삶에 로또를 또다시 청해야 하기 어려운이다. 나가 아닌 타인을 향해 열린 마음은 결코 멈추는 법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빛나기 때문이다.

복권은 인류 역사와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의미한 활용법으로 복권을 대하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우리의 로또는 가슴 안에 들어 있는 사랑일 테니 말이다.

/한국재산관리연구소(www.fp.co.kr) 대표

날씨

11/27 火 일출 07:24 일몰 17:1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서울 3/8 · 청주 -2/8 · 대전 -2/8 · 광주 0/9 · 전주 1/8 · 제주 7/13 · 강릉 3/7 · 울릉도 /8 · 대구 -1/8 · 포항 1/9 · 울산 0/9 · 부산 1/9

일상생활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묻는 신체 부위는 손입니다. 손을 씻게 되면 세균을 58% 이상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염병을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1830 손씻기 원칙으로 (하루 8번 30초씩) 호흡기 감염 질환을 예방하세요.

천식 지수 ·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한림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 8877
www.saju4000.com

직장 오래 못다니고 헛꿈만 꿔 주변 물건 정리하면 운세 도움

대마뿔은 남자 80년 7월 23일 음력 오전 9시 25분

Q 저의 사주가 궁금합니다. 제 사주를 좀 봐주세요. 제가 한 직장에서 오래 일도 못하고 자꾸 헛된 꿈만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요번에 개명까지 고려 중입니다. 제 사주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름 바꾸면 좀 나을까요. 또 언제쯤 변속을 만날 수 있을까요.

A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사회적 출세일 것입니다. 타고난 사주에다 좋은 이름을 갖는다면 성공을 약속받게 될 것이며 사주가 나쁘더라도 좋은 이름을 갖는다면 불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름이나 사주를 운개시키지 않고 운을 바꿀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주변에 당장 필요 없는 물건들을 아무렇거나 방치하지 말고 정리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자신을 짓누르는 일체의 기를 소멸하는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지인들과 종종의 도움 얻고 정돈을 하면 불리해집니다. 이 점에 유의를 한다면 운은 서서히 열리게 되니 그 효과로 원하는 바를 하나씩 바꾸어 가십시오.

나이 들수록 미래 안보여 답답 낙심 말고 자부심 가지면 활짝

의존심사 남자 78년 2월 25일 음력 밤 12시 5분

Q 예전에 선생님의 연재를 보며 많은 삶의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꼭 한 번 읽고 싶은데 먼저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대학 졸업 이후부터 골과 관련된 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업종 자체가 작고 수입이 적은데다 나이가 점점 드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직업운이 어떨지요.

A 운에 역마운을(驛馬運)으로 노력하는 것 이외에 복록과 행운이 따르게 되어 발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상의 음덕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복덕이므로 낙심하지 않고 힘낼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해란국죽(梅蘭菊竹) 사군자 꽃이나 물고기, 십장생 등의 동식물이 그려진 상징적인 현화 등도 굴을 잘 써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별, 관해 생명력이 약해지거나 소멸되는 것은 치우는 게 좋겠지요. 거의 입지 않은 옷을 넣어두거나 불필요한 소품이 널려 있다면 튼리의 원만 창작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막혀 있게 됩니다. 서쪽을 노랗게 장식하고 보라색 접시에 소금을 담가둬 보십시오. 지혜의 원천이 끊임없이 솟아날 것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묻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8	
6					2		4	
5			1		9	7		
	9			1		5		2
8		6		7			1	
		4	8		3			1
	8		7					3
	3					9	5	

	9	3					1	
5					6		4	
2			7		1	8		
	8			3		5		6
1		6		2			3	
		5	8		7			9
	3		9					8
	7					4	5	

스도쿠 정답

신점(神占) 운세 11월 27일 (음 10월 14일) 김희수 인생상담 (02)577-0541

쥐 48년생 마음을 확 열어놓으면 편안하다. 60년생 기쁜데 힘겨움 벗이 있구나. 72년생 흔들리던 위상 확실 안정된다. 84년생 목적 달성 해도 조심은 접지 마라.

소 49년생 재력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 61년생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가 나타난다. 73년생 소망은 곧 이루어지나 기다려라. 85년생 사람을 얻으니 세상 다 얻은 기분이다.

호랑이 50년생 의사 표현은 확실할수록 이롭다. 62년생 이대로 노력해 비례함을 명심~ 74년생 조건 없이 베풀면 길운이 찾아온다. 86년생 일이 실험날 수 있으니 감정 조절 잘하라.

토끼 51년생 예절은 빛나거나 대세를 것. 63년생 눈물로 호소할 일이 생긴다. 75년생 업무는 바쁘나 반짝 기쁨도 있구나. 87년생 된 떠들러 얻은 말이 기쁨을 선사한다.

용 52년생 자녀 일 무시하면 뒤늦게 후회한다. 64년생 호박이 넝쿨째 굴어오는 형국이로구니. 76년생 열정이 있으면 희망은 커진다. 88년생 상사 충고 귀담아들어라.

뱀 53년생 좋은 소식이 있다. 65년생 짐짐한 제안은 단번에 물리치는 게 좋다. 77년생 평소에 관심 없었던 것에 관심 가져보지. 89년생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다.

말 42년생 원해한 일은 좋은 소식 있다. 54년생 투자 제안은 고려하지 마라. 66년생 얼얼대해서 동더 같은 귀인 만난다. 78년생 꼬였던 일은 곧 풀리니 걱정하지 마라.

양 43년생 배우자 걱정에 초조한 마음은 안절모드로~ 55년생 뜻밖의 하락가 예상된다. 67년생 경험자의 훈대에 헷갈리는구나. 79년생 오가는 정에 사랑은 더 깊어진다.

원숭이 44년생 돈 고민은 벗이 해결해준다. 56년생 내 것이 아니면 관심 밖으로 할 것. 68년생 큰 재물을 얻으니 배포도 커진다. 80년생 마음을 솔직하려면 심금을 울려라.

닭 45년생 운전은 가급적 하지 마세요. 57년생 첫 단추를 잘 꿰면 끝도 좋다. 69년생 취구랑에 썰어 드는 형국이로구니. 81년생 성과가 좋아 두둑한 보너스 뒤따른다.

개 46년생 갈 곳이 많아 바빠진다. 58년생 골이 틀으니 걱정부터 하지 마라. 70년생 배우자 요구 들어주면 돌아오는 게 많다. 82년생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돼지 47년생 돈 때문에 고민이 생기니 대비하라. 59년생 집안에 사라졌던 웃음을 되찾는다. 71년생 회사의 충선에 머뭇기 오싹~ 83년생 열등 이겨내면 관리은 더욱 밝아진다.

WBC '좌완 트리오' 불참 악재

이천호의 베이스볼 카페

WBC는 일본만의 걱정은 아닌 듯하다. 한국 WBC 대표팀에도 악재가 일어나고 있다.

일본 킬러로 명성을 날린 봉중근(LG)이 부상을 이유로 대표팀에서 사퇴한 데 이어 에이스 류현진은 LA 다저스에 입단하면 WBC 출전이 불가능하다. 김광현(SK)도 어깨 상태가 완전치 않아 태극 '좌완 트리오'가 모조리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들은 좌완 트리오의 불참 뉴스를 크게 취급했다. 앞선 두 대회에서 라이벌로 지열한 경쟁을 펼쳐온 좌완 선수들의 불참 소식은 분명 호재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구대성, 김광현, 봉중근, 류현진 등 한국의 왼손 투수들에게 약했다.

이들의 불참은 한국에게는 뼈아픈 전력 손실이다. 한국은 도쿄 2라운드에서 일본과 4강 진출을 놓고 최대 두 번 격돌이 예상된다. 그런데 누구를 선발투수로 내보낼 것인지 불투명하다. 예비명단을 살펴보면 이들 셋을 제외하면 삼성의 장원삼뿐이다. 박희수(SK)을 제외하고는 불펜요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가에 빅리거 추신수(클리블랜드)도 불참 쪽으로 기울고 있다. 이미 일본은 6명의 빅리거가 모두 사퇴했다. 소속 팀의 반대가 컸지만 선수들이 빅리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프링캠프를 빠질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도 컸다. 추신수도 이들과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비 FA 선수들이다. 이번 대표팀 주축 선수들 가운데 유난히 예비 FA들이 많다. 정근우(SK), 강민호(롯데), 오승환, 장원삼(삼성), 이용규·윤석민(KIA) 등이 포진해 있다. 시즌을 마치면 하나같이 기본 50억원 이상의 초대형 계약을 앞둔 선수들이다. 이들에게 부상은 악몽이나 다름없다.

WBC 본선대회가 3월 2일부터 열리기 때문에 분명히 평년보다는 3~4주 정도 컨디션을 빨리 끌어올리게 된다. 아무래도 부상 선수가 나올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 자칫 부상을 우려해 대회에 불참하거나 몸을 사리는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류중일 감독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OSEN 야구전문기자

손흥민 "악" 기성용 "휴"

허벅지 부상 28일 결장·부상 회복 교체 출전 '엇갈린 행보'

잘나가는 유럽파 축구스타 기성용(23·스완지시티)과 손흥민(20·함부르크)이 희비가 엇갈리는 행보를 보였다.

기성용은 26일 열린 2012~2013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후반전이 시작될 때 에티 셰흐터와 교체 투입돼 2경기 만에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1일 사우샘프턴전에서 왼쪽 허벅지 뒷근육(햄스트링)을 다친 그는 18일 뉴캐슬 원정에는 나서지 못했지만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이날 경기에 나섰다. 자신의 우상인 제라드와 맞서 그라운드를 누빈 기성용은 코너킥을 전담하고 몇 차례 위협적인 중거리 슈팅을 날렸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양팀은 득점 없이 비겼다.

"헤어스타일 변했네" 기성용(왼쪽)이 26일 열린 리버풀전에서 후반 교체출전해 상대 수비수 조 앨런과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손흥민이 독일 분데스리가 뉘른베르크전에서 상대 선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지고 있는 모습

반면 함부르크의 '해결사' 손흥민은 허벅지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

함부르크는 26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지난 24일 뒤셀도르프와의 2012~2013 분데스리가 13라운드 경기에서 오른쪽 허벅지 염좌 부상을 당했다"며 "28일 열리는 샬케04와의 14라운드 홈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행히 함부르크 구단은 손흥민의 부상이 미비해 다음달 3일 펼쳐지는 볼프스부르크와의 15라운드 원정경기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손흥민은 올 시즌 정규리그 13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6골을 터뜨리며 팀의 해결사로 맹활약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메시 한해 최다골 -3

리오넬 메시(25·바르셀로나·사진)가 두 골을 넣으며 한 해 최다 골 기록에 성큼 다가섰다.

메시는 26일 열린 2012~2013 프리메라리가 13라운드 레반테와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2분 선제 결승골을 포함해 2골을 터뜨리며 팀의 4-0 완승에 앞장섰다.

이날 활약으로 메시는 올해에만 82골을 쌓아 한 해 최다 골 기록에 3골을 남겨뒀다. 역대 축구선수 중 한 해 최다 골 기록은 1972년 독일 대표팀과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85골(60경기)을 올린 게르트 뮐러가 가지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활약 덕에 정규리그 6연승과 올 시즌 13경기 무패(12승1무)의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김민준기자

구자철 2경기 연속 풀타임

구자철(23·아우크스부르크·사진 왼쪽)이 2경기 연속 풀타임 활약을 펼쳤다.

구자철은 26일 열린 보루시아 묀헨글라드바흐와의 2012~2013 분데스리가 13라운드 홈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라운드를 누볐다. 지난 17일 프랑크푸르트와의 12라운드 원정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했던 그는 이날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볐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전반 5분 사샤 묄더스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후반 40분 파트릭 헤르만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1-1로 비겼다. 지난달 5일 브레멘(3-1 승)전 이후 6경기 연속 무승(2무4패)의 부진에 빠졌다. /김민준기자

창사 11 주년
세계를
알립니다